언론사: 경향신문-3-401.txt

제목: 은퇴자 10명 중 7명 “황혼이혼 등 5대 리스크 경험···8701만원 손실”  
날짜: 20170309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9111124001  
ID: 01100101.20170309111124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50~60대 은퇴자가 겪을 수 있는 ‘5대 리스크’(위협요인)로 황혼이혼, 금융사기, 창업실패, 중대질병, 성인자녀 등이 꼽혔다. 이중 노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히는 리스크는 창업실패와 황혼이혼이었다.<br/><br/>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50~60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2%가 5대 은퇴리스크 중 적어도 한 가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들은 리스크로 인해 평균 8701만원 손실을 봤으며 이후 생활비를 31.2%나 줄였다.<br/><br/>리스크 중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창업실패였다. 은퇴자 10명 중 3명(28.8%)가 은퇴 후 창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은 휴·폐업했다. 이에 따른 자산 손실은 평균 7023만원에 달했다. 이후 생활비를 평균 41.3%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황혼이혼도 경제적 타격이 큰 리스크로 평가됐다. 은퇴자 100명 중 3명(2.9%)이 50세 이후 이혼했다. 이혼한 은퇴자의 생활비(부부가 아닌 본인 1인 생활비 기준)는 이혼 전보다 46.2%나 줄어들었다.<br/><br/>은퇴 이후 발생빈도가 높은 위협요인은 자녀의 결혼·취업 등을 지원하는 성인자녀 리스크와 중대질병 리스크였다. 은퇴자 2명 중 1명(55.5%)은 학업을 마친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평균 1억2852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은퇴자들은 전체 생활비의 19.9%를 자녀에게 지출했다.<br/><br/>중대질병은 발생빈도는 높지만 경제적 타격은 중간인 리스크로 평가됐다. 이미 은퇴자 4명 가운데 1명(23.7%)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암·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대질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자산 손실은 평균 2340만원이었다. 이들은 이후 생활비를 20.9% 줄였다.<br/><br/>금융사기를 당한 은퇴자들도 있었다. 은퇴자 100명 중 6명(6.2%)이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금융사기에 노출됐던 경우도 19% 있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1834만원이었다. 금융사기 이후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평균 27.3% 줄였다.<br/><br/>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span class='quot0'>5대 은퇴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발생빈도가 낮지만 충격이 큰 황혼이혼과 금융사기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무리한 창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대질병·성인자녀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장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관리하고, 동거자녀의 생활비 분담 및 결혼자금 계획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2.txt

제목: 여자 선수 전용 히잡 나온다  
날짜: 20170308  
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8212240001  
ID: 01100101.20170308212240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ㆍ나이키, 무슬림 위해 개발<br/><br/><br/>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무슬림 여성 선수들을 위한 히잡을 개발해 내놓는다.<br/><br/>나이키는 8일 “<span class='quot0'>1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용으로 선수들에게 전달했다</span>”고 밝혔다. 나이키는 보완을 거쳐 내년 봄부터 ‘나이키 프로 히잡’을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스포츠 히잡은 무더운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 가볍고 신축성과 통풍성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로 제작됐다.<br/><br/>나이키는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무슬림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 움직임에 주목했다. 나이키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여자 역도선수 암나 알 하다드가 미국 오리건의 나이키 본사를 방문해 자신이 국제대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br/><br/>나이키의 스포츠용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계에서 히잡 허용을 공론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국제경기단체는 유니폼 규정 위반, 부상 위험 등을 이유로 히잡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 인종, 종교 차별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한다.<br/><br/>국제축구연맹(FIFA)은 히잡을 허용하지 않다가 2014년 규정을 바꿨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여전히 히잡 착용을 금하고 있다.<br/><br/><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3.txt

제목: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  
날짜: 20170307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7211758001  
ID: 01100101.2017030721175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ㆍ말기 암 투병 미국 유명 작가 공개 구혼에 누리꾼들 ‘뭉클’<br/><br/><br/><br/>말기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여성 작가가 홀로 남게 될 남편을 위해 ‘공개 구혼’에 나서 누리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br/><br/>난소암 말기 환자인 시카고 출신 아동도서 작가 에이미 크라우스 로즌솔(51·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 코너 ‘모던 러브’에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6일 현재 130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뉴욕타임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4600회 이상 공유됐다. 로즌솔은 약 30권의 어린이 동화책을 썼고 회고록 <일상생활 백과사전> 등을 펴낸 바 있다.<br/><br/>그는 칼럼에 “예전부터 글을 쓰려고 했지만, 치즈버거(5주째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못하고)를 먹지 못했고, 모르핀 주사를 맞느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 탓에 손가락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면서 “더는 늦출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서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br/><br/>로즌솔은 26년간 행복했던 결혼생활과 느닷없이 닥친 암 선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 이별의 아쉬움 등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는 2015년 9월, 막내딸이 대학을 가고 남편과 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차에 맹장염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난데없이 난소암 선고를 받았다며 “적어도 26년은 더 함께 살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로즌솔은 남편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그는 “키 178㎝에 몸무게 73㎏, 반백의 머리에 헤이즐색 눈동자를 가졌다”는 신체 특성에서부터 “세련된 멋쟁이여서 20대인 두 아들이 아빠 옷을 종종 빌려 입을 정도다.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스트이고, 집 안 곳곳을 스스로 손보고 고치는 만능 재주꾼이며, 그림 그리기와 라이브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설명했다.<br/><br/>그는 “꿈처럼 멋지고 결단력 있는 여행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제 남편 제이슨이 바로 당신의 사람”이라고 적었다. 로즌솔은 “<span class='quot0'>남편과 잘 어울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남편에 대해 알게 돼 또 다른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길 소망한다</span>”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 칼럼 아랫면을 공백으로 남겨둔다고 전했다.<br/><br/><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4.txt

제목: 암환자 병력만 알면 10초 만에 치료법  
날짜: 20170307  
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7211757003  
ID: 01100101.20170307211757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길병원 인공지능 의사 ‘왓슨’…“곧 암 정복도 가능해질 것”<br/><br/><br/><br/>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환자를 치료하는 ‘인공지능(AI) 의사’ 시대가 열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미국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 포 온콜로지’가 지난해 12월5일 첫 진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치료책을 내놓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길병원은 유방암과 대장암, 폐암 등 암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왓슨’을 도입했다. 지난 1월에는 부산대병원도 도입했다.<br/><br/>인천 남동구 길병원 본관 1층에는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환자와 전문의가 왓슨이 제시한 치료법에 대해 논의한다.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은 김모씨(62·여)는 왓슨이 10초 만에 치료책을 내놓은 것을 보고 놀랐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왓슨이 눈앞에서 저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여러 전문의도 같은 의견을 내 암 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IBM 창립자의 이름에서 딴 슈퍼컴퓨터 왓슨은 90개의 서버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2880개를 갖춰 인간의 생각 속도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아낸다. 지난해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와 비슷하다.<br/><br/>왓슨은 290종의 의학저널과 200종의 교과서, 150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료전문자료를 습득해 이를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책을 찾아 의료진과 환자에게 제시한다. 왓슨은 암 환자의 전신상태와 조직검사 결과, 수술경력 등 20~30개의 정보를 입력하면 8~10초 만에 치료책을 내놓는다. 최적의 항암치료와 전문의에게 권유할 내용,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 등을 제시하고, 학술지에 소개된 논문 등 객관적 자료도 보여준다. 또한 항암제 투약량과 치료 주기까지 알려준다.<br/><br/>왓슨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2014년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한 M D 앤더슨 의사들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왓슨이 제시한 표준 치료법은 정확도가 82.6%에 달했고, 부정확도는 2.9%에 불과했다. 또한 왓슨이 2012년 처음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암 환자의 진료를 터득한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폐암환자에게 제안한 왓슨의 치료 방침의 정확도가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근 길병원장은 “빅데이터인 왓슨은 날로 진화하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라며 “왓슨을 만나면 치료를 넘어 향후에는 암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5.txt

제목: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열겠다” 취임 1년 김병원 농협회장  
날짜: 20170307  
기자: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7171459001  
ID: 01100101.20170307171459001  
카테고리: 경제>자원  
본문: ㆍ태양광 등 농업 외 사업 발굴<br/><br/><br/><br/>취임 1년을 맞이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span class='quot0'>2020년까지 연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span>”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 외 소득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 35㎏ 중 10㎏을 쌀로 바꾸도록 쌀 가공품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노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 내 의료법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br/><br/>김 회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6대 핵심역량 중심 75건의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신 재배기술·소득작물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농자재 가격, 구매비용 등을 안정시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소득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br/><br/>우선 농촌관광,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소득원을 찾아내 농업 외 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회장은 “농외소득의 대표사업은 태양광 발전”이라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500평 정도의 밭에 2억원을 투자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가 실질 순이익이 월 100만~140만원 정도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 비용은 50%까지 보조된다”고 말했다. 농업인 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br/><br/>김 회장은 “<span class='quot0'>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실질적인 75가지 과제로 농가소득 공식을 전산화하고, 날마다 집무실 모니터에 띄워 전국 조합장이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br/><br/>농협은 도시·농촌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체 의료법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질병이나 반복노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인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br/><br/>농협은 공익성 있는 교육기관에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 또는 일반대학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 등을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0'>퇴행성 관절염부터 암까지 농가 질병에 관해 의료시설이 좋은 대학 등과 연계해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쌀 시장 안정을 위해 농협이 사들이는 수확기 벼 비중은 2020년까지 47%까지 늘리기로 했다. 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농협이 확보하고 쌀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br/><br/>생산조정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농협은 40㏊ 규모의 연구단지를 만들어 생산조정제 도입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17년 말까지 농협과 오리온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쌀 가공제품을 개발·판매하고 농협식품회사를 설립해 쌀 가공식품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 1인이 소비하는 밀가루 35㎏ 중 10㎏을 쌀가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br/><br/>김 회장은 연례행사가 된 가축 질병도 방역 대책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오는 4월까지 자체적인 방역 행동지침(SOP)을 제정하고 구제역 백신을 공급·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합수의사·컨설턴트 등 방역전문 인력풀을 1000명, 시·군별 계통조직을 활용해 범농협 비상방역인력 525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6.txt

제목: 충북대 홍진태 교수팀, 암·동맥경화 억제 물질 발견  
날짜: 20170306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6204510001  
ID: 01100101.201703062045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당단백질류인 ‘사이토카인 interleu<br/><br/>kin-32’(이하 IL-32)가 암과 동맥경화 억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확인했다. 충북대는 6일 약학과 홍진태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 가지 형태의 IL-32를 발현시킨 유전자 조작 동물과 유전자 도입 세포를 이용해 암과 염증성질환, 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br/><br/>연구진은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혈관내피세포 염증 현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약학 분야 국제학술지 ‘Pharmaco, ogy & Therpeutics’ 2월13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됐으며, 의생명과학 국제학술지 ‘Theranostics’ 4월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br/><br/><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7.txt

제목: 암·치매 걸린 실험 쥐 만드는 기술 첫 개발  
날짜: 20170306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6204205001  
ID: 01100101.201703062042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매 등 퇴행성 질환에 걸린 실험용 쥐를 만드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내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암,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용 동물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 연구사업단 용역과제로 박희성 카이스트 교수와 박찬배 아주대 교수가 공동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br/>이번에 개발된 동물모델은 수정 후 모체에서 성장할 때 간, 폐 등 특정 조직·기관의 표적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암,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리도록 만든 것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2만여종은 다양한 변형을 거쳐 생체 내 세포 신호 전달이나 성장 등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데, 비정상적인 변형이 일어나면 세포 신호 전달과 대사 활동이 손상돼 암과 치매, 당뇨 등 중증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이나 치매 등 질병의 원인 규명 연구 및 맞춤형 표적 항암제, 뇌 신경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br/><br/>안전평가원은 2014년부터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개발 연구사업단’을 통해 신약개발 연구에 필요한 질환모델동물을 개발하고 있다. 2018년까지 고지혈증 실험쥐 등 26종을 추가 개발해 신약개발, 의약품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8.txt

제목: 고화질 TV에 쓰는 ‘퀀텀닷’ 몸 깊은 곳 암을 알려준다…포스텍 김성지 교수팀 기술개발  
날짜: 20170306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6113109001  
ID: 01100101.201703061131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세한 색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초고화질 TV에 활용되는 ‘퀀텀닷(quantum dot·양자점)’으로 몸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암세포를 발견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퀀텀닷은 빛을 내는 수십~수백 나노미터(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을 의미한다.<br/><br/>포스텍은 6일 김성지 교수팀(화학과)이 아산생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퀀텀닷 발광신호를 조절해 몸 속 깊은 곳에서 암을 발견하면 이를 적외선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퀀텀닷은 적외선을 자유롭게 발광하는 성질이 있어 신경전달이나 줄기세포 분화 및 암 전이 과정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의학계에서 조영제로 연구가 활발하다.<br/><br/>김교수팀은 퀀텀닷 표면의 유기물질과 퀀텀닷 사이의 빛을 유발하는 전자를 이용해 ‘제2근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내는 신호를 조절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또 퀀텀닷과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유기물질을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학결합)’로 연결해 평소에는 낮은 신호를 보이다가 암 조직 근처에서만 높은 발광신호를 보이는 ‘퀀텀닷 프로브(probe)’를 만들었다. 프로브는 ‘탐침’이라고도 하며 특정 물질과 부위·상태 등을 검출하는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이다.<br/><br/>김교수팀은 퀀텀닷 발광신호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체의 두꺼운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확인하려면 제2근적외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학 프로브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성과는 다른 단백질 효소 또는 생체내 분자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퀀텀닷 프로브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성과는 미국 화학회(ACS)가 발간하는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의 지난 1월2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09.txt

제목: 수십년 석면공포…“폐공장 빨리 철거해 주오”  
날짜: 20170305  
기자: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5215530001  
ID: 01100101.20170305215530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ㆍ목포 온금동 ‘조선내화 공장’ 방치 …400여가구 고통 호소<br/><br/><br/><br/>전남 목포시 유달산 자락과 그 아래 평지에 펼쳐진 온금동. 목포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불리는 곳이다. 이 동네 한복판엔 길고 높은 창고형 폐공장 건물 15곳이 휑하니 서 있다. 불에 잘 견디는 벽돌을 만드는 조선내화 공장 터다. 면적이 2만3000여㎡다. 1990년대 초 광양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붕은 온통 슬레이트로 덮이고 무너진 벽면 상당수도 슬레이트로 가려져 있다. 벽면 아래 땅바닥엔 슬레이트가 부스러지면서 생긴 가루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br/><br/>‘강풍주의보’가 내린 지난 1일 오후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골목을 훑으며 회오리가 일었다. 순간 길거리 곳곳에 내린 회색가루가 하늘로 치솟은 뒤 집안으로 날아들었다. 폐공장을 ㄷ자 모양으로 둘러싼 동네엔 아직도 400여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다. <br/><br/>마을 입구 가게로 라면을 사러온 이모씨(76)는 창틀에 묻은 먼지를 닦아 보이며 “석면 가루 때문에 주민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꼭 15년 전 이 먼지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늘 마음 졸이며 살고 있다</span>”고 말했다. 가게 주인 명애자씨(80)는 “<span class='quot1'>여름이고 겨울이고 문을 열고 살 수가 없고, 빨래도 햇볕 한 번 못 보이고 집 안에서 말려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저 폐공장을 하루빨리 없애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br/>주민 대표 김대식씨(49)는 한국석면환경협회가 조사한 마을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공개하며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은 공기 1㏄당 0.016개로 법정허용기준치(0.01개)보다 높았다. 김씨는 “<span class='quot2'>바람 한 점 없는 날 조사한 수치인데도 기준치를 넘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거센 바람에 먼지가 많은 겨울엔 석면농도가 훨씬 높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암 환자 주민이 늘었다. 주민들은 폐공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보건당국이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r/><br/>주민 안전도 걱정스러운 상태다. 태풍이나 강풍 때는 슬레이트 자체가 날아다니며 재산피해를 내거나 부상을 입힌다고 했다. 폐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 갈 채비를 하던 김모씨(81)는 “태풍 때는 슬레이트 조각들이 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거나 길 가던 주민들을 덮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선내화 측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며 2년여 전 공장 지붕을 녹색 그물로 싸놓고 있지만 먼지발생이나 생활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내화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마을이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본격화되면 개발자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span>”이라고 말했다.<br/><br/><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0.txt

제목: [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 정밀의료의 진로  
날짜: 20170305  
기자: 이학종 |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5203548001  
ID: 01100101.2017030520354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16년 개최된 제46회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제에 불을 댕겼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목했고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br/><br/>헬스케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월 특정 질병에 대해 개인 차이를 고려해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정밀의료 계획’을 발표했다.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체정보와 의료정보, 주변환경, 생활습관 등을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에 연계시키고 분석해 질환의 예방 및 진단, 치료 등 환자 개인별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br/><br/>물론 과거에도 ‘맞춤의학’이라는 명칭 아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그러나 정밀의료는 이보다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와 정밀한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한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여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정밀의료가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될 경우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br/><br/>대표적인 예로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현재는 증상 발생 이후 획일화된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밀의료가 헬스케어 시장에 녹아들 경우,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환자를 미리 찾아내어 치료가 아닌 예방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당뇨병 발병 후 발생하는 합병증 및 치료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br/><br/>암에 걸린 환자도 환부 조직에 대한 유전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밀의료의 발전과 적용은 단순히 첨단기술과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친화적인 의료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br/><br/>우리나라의 근대화된 의료는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따라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가속화될 미래의료 산업은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 앞선 ICT 기술,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의료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영상 등 미래의료 산업 분야에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빅데이터,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등 여러 산업과 융합해 발전된 국내 의료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헬스케어 산업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지원 가능하게 하는 정밀의료는 4차 산업혁명 속 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다. 의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첨단기술과 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눈부실 것이며, 그 성과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누릴 것이다.<br/><br/>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정밀의료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우수한 인프라와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헬스케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글로벌 의료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br/><br/><이학종 |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

언론사: 경향신문-3-411.txt

제목: [현장]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씨 10주기···대답 없는 삼성  
날짜: 20170305  
기자: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5145431001  
ID: 01100101.201703051454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2007년)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62)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노숙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속초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황씨는 일주일에 2,3일을 농성장에서 보낸다. 딸이 사망한 해에 결성된 반올림 활동을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br/><br/>그는 “지난 10년 동안 화학약품 유해물질 공개와 사과·보상 등 삼성에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되풀이 해왔다”면서 “삼성은 여전히 화학약품은 영업비밀이고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어려운 싸움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동참과 응원으로 가능했다”며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또 병들고 죽고, 다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사옥 앞 노숙농성은 500일을 훌쩍 넘어섰다. 반올림은 직업병 협상 과정에서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독단적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반발해 지난 2015년 10월7일 농성에 들어갔다. 반올림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자체 보상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br/><br/>3월6일은 황유미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속초로 향하던 아빠의 택시 뒷좌석에서 사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br/><br/><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2.txt

제목: ‘한글의 멋 담는다’ 행복청, 세종 신도심 주민복합공동시설에 한글 디자인 적용  
날짜: 20170305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5115333001  
ID: 01100101.20170305115333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세종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주민공동시설에 한글 모양의 디자인 등이 적용된다.<br/><b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반곡동(4―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자치센터와 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의 디자인에 ‘한글의 자음’을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br/><br/>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세종’의 핵심 가치인 한글의 멋을 건축물에 적용해 새로운 형식의 한류건축물로 설계하기로 했다. ‘세종’의 첫 자음인 시옷(ㅅ)과 지읒(ㅈ) 2개의 자음을 건축물 형태·디자인에 적용해 한국적인 디자인을 입히는 식이다.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장애물 없는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도 적용된다. 이용자의 동선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br/><br/>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또 에너지 절약형 최신 초단열 디자인과 태양광·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등 최신 건축기법을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될 예정이다.<br/><br/>행복청은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 전문기관 연구,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인된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 주차장 확대(30%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4% 이상 적용,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등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br/><br/>최종 당선작은 5월18일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김준연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span class='quot0'>한글 자음을 이용한 건축물 디자인과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3.txt

제목: 배우 민욱, 암 투병 중 별세  
날짜: 2017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2210145002  
ID: 01100101.2017030221014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씨가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70세.<br/><br/>고인은 1년 반 전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해 왔다. 그는 1969년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에 입문했다.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제국의 아침>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2010년 주말극 <결혼해주세요>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박정옥씨와 1남3녀가 있다. 빈소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40분. (02)797-4444

언론사: 경향신문-3-414.txt

제목: [안도현의 사람]암수술 이겨낸 봄꽃 같은 제자 이정민  
날짜: 20170301  
기자: 안도현 우석대 교수·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1205935001  
ID: 01100101.2017030120593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또 삼월이다. 이렇게 말하면 삼월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만 같다. 사실이 그렇다. 나는 삼월이면 봄꽃보다 신입생들을 먼저 만난다. 중·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나 대학에 있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신입생들이 목련이고 개나리이고 진달래꽃이다.<br/><br/>이정민을 만난 것도 삼월이었다. 1994년 3월 전북 장수군의 산서고등학교. 오랜 해직교사 생활을 끝내고 찾아간 그곳은 산토끼하고 발맞추기 딱 안성맞춤이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 핀 들꽃들처럼 싱싱했다. 정민이의 첫인상은 산서우체국 뒤뜰에 핀 목련 같았다. 친구들보다 키가 컸고 눈이 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을 썩 잘 썼다. 나는 정민이를 데리고 백일장을 다녔고 정민이는 상을 곧잘 탔다. 정민이는 철도보선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썼다.<br/><br/>“아빠는 하루에 삼일을 사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논일을 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출근해서는 철도보선원으로 하루를 사시고, 퇴근해서는 또 밤늦게까지 논에서 하루를 사셨죠. 그렇지만 힘든 내색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br/><br/>정민이네 아버지 이준형씨는 열일곱 살에 소년가장이자 가난한 집안의 종손이 되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종가의 제사는 끼니때처럼 돌아왔다. 이준형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홉 살과 세 살이었던 두 동생을 키웠다. 군대 제대 후에는 철도청에 입사하여 줄곧 오수역에서 근무했다. 가난한 살림에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오수역까지 이십리 길을 걸어 다녔다. 낮에는 철도보선원으로 일하고, 새벽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아버지를 닮았을까. 정민이는 생활력이 강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도 하기 전에 입시학원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다.<br/><br/>정민이는 내가 사는 전주에서 대학을 다녔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뜸해지지만 정민이는 수시로 안부를 물어온다. 스승의날이면 어김없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언제나 쾌활하고 밝은 표정인 정민이를 보면 흐린 날에도 마음이 맑아졌다.<br/><br/>정민이는 국문학과에 진학했지만 본격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정민이는 시를 쓰는 남자친구 문신을 사귀었다.<br/><br/>“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될 거예요.”<br/><br/>정민이는 시 쓰는 남자친구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때 문신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시인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여자친구라니.<br/><br/>문신은 2004년 ‘세계일보’와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다. 당시 허소라 시인과 내가 ‘전북일보’ 심사를 했는데, 그때 나는 정민이의 남자친구로 문신을 인정했던 것 같다. 문신은 자기 능력으로 시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처럼, 정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신이 시인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br/><br/>정민이와 문신은 7년쯤 연애하고 결혼했다. 가난한 시인과 사느라 정민이는 늘 바빴다. 첫째를 임신해서는 만삭의 몸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태어난 윤이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그사이의 우여곡절을 나는 들어서 안다. 가난했으므로 젖먹이를 여수 할머니댁에 맡겨야 했고, 학원 화장실에서 퉁퉁 분 젖을 짜야 했다. 그렇게 짠 모유를 냉동시켰다가 주말이면 여수로 달려가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방과후 교사로 있을 때 낳은 세영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막내 주영이는 이제 다섯 살이 되었다. 그사이에 정민이는 독서논술학원을 직접 운영했다.<br/><br/>그런 정민이가 작년 여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항암치료를 하느라 머리카락도 죄 빠졌다고 들었다. 나는 가슴에 칼을 대는 심정을 잘 모른다.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심정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 정민이가 여성스럽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파하지 않는 것이 예뻤다. 씩씩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br/><br/>올해 마흔 살이 된 정민이는 지금 생애 최초로 휴식을 갖고 있다. 철들면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을 돌아보는 중이다. 아버지가 하루를 삼일처럼 살아왔듯 정민이도 그렇게 살아왔다. 삶에도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다. 정민이는 작년 가을부터는 오래 잊고 있었던 글쓰기도 새로 시작했다. 일명 모닝 글쓰기. 새벽에 일어나 대학노트에 글을 쓴다. 지난달 목포와 진도를 여행하고 와서는 이렇게 썼다.<br/><br/>“몸이 고장나면서 나는 비로소 멈추는 법을 알았다. 멈추어도 괜찮았다. 곁에는 남편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었다.”<br/><br/>모닝 글쓰기를 두고 남편인 문신 시인이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세상을 쓰는 것 같아요.” <br/><br/>정민이는 요즘 새벽에 글을 쓰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막내는 유치원까지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문득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삶의 속도 때문일 것이다. 정민이는 이제 하루를 하루로 사는 법을 익히는 중이다. 그렇게 막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면 오전에는 책을 읽는다. 시도 읽고 소설도 읽는다. 오후가 되면 병원에 간다.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고 3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 그래도 몸 안 어딘가에 암세포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 호르몬 치료 때문에 갱년기도 일찍 찾아왔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암세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br/><br/>지난달에 항암치료가 끝나고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암덩어리를 떼어낸 가슴은 홀쭉해졌지만 대신 꿈이 커졌다. 느리지만 꾸준히 자라는 머리카락처럼 정민이는 마흔 살에 다시 시작하고 있다.<br/><br/>“선생님.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가슴 없어도 돼요. 세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하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br/><br/>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정민이가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십여 년 전, 정민이를 처음 보았던 날처럼 어느덧 삼월이다. 이제 곧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신입생 이정민은 다시 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민이를 목련이 아닌 다른 봄꽃으로 불러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삼월이 가기 전에, 봄꽃들이 지천으로 피기 전에 정민이네 식구들을 꼭 만나야겠다.<br/><br/><안도현 우석대 교수·시인>

언론사: 경향신문-3-415.txt

제목: 개인 블로거 52명 ‘허위·과대광고’ 혐의 첫 고발  
날짜: 20170228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215656002  
ID: 01100101.20170228215656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ㆍ건강기능식품 업체 돈 받고 “100% 천연원료” 등 홍보 글<br/><br/>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당국이 제조판매업체가 아닌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span class='quot0'>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span>”고 28일 밝혔다. <br/><br/>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건네준 내용을 토대로 “<span class='quot1'>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span>”는 등의 글을 작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개인 블로그의 허위·과대광고글은 그동안 삭제 요청을 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적발업체가 ‘돈을 주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고 진술했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6.txt

제목: 오늘의 인사 - 2017년 3월 1일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213534001  
ID: 01100101.20170228213534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임용 제청 △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손창동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임명 제청 △감사교육원장 심호<br/><br/>■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첨단항공과장 정용식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김규철 △수도권정책과장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정채교 △수자원산업팀장 김철기 △신공항기획과장 김인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 조현준 △민자철도팀장 김태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희천 △부동산평가과장 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 김석기 △간선도로과장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 이상헌<br/><br/>■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문경호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주 △기업환경과 곽소희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정책총괄과 선문규 △인재경영과 임진상 ◇기술서기관 승진 △타당성심사과 이철규<br/><br/>■국방부 ◇과장급 전보 △전력자원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장 서기관 문희영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서기관 정현호 <br/><br/>■통일부 ◇과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배윤수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김종우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장 김훈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봉석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충남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여상기 △〃 교육연수과장 이혜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김명상 △〃 교육기획팀장 신재표 △〃 교육훈련팀장 이종희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이경 △〃 동해선운영과장 우계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유재윤 <br/><br/>■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 ◇국장급 전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윤분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 △해양보전과장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 조일환 <br/><br/>■환경부 ◇과장급 전보 △환경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이재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정영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최동호<br/><br/>■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이정민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오영렬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신병대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김성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 이광열 ◇과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수란 △〃 관리자교육과장 장선정<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서경원<br/><br/>■법제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지은<br/><br/>■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임병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송성헌 △통계정책과장 서운주 △통계조정과장 서경숙 △통계서비스기획과장 류제정 △경제총조사과장 이명호 △소득통계개발과장 김대유 △농어업통계과장 홍병석 △농어업동향과장 김진 △조사기획과장 김대호 △지역통계총괄과장 박진우 △교육기획과장 최정수 △경인청 사회조사과장 조경호 △〃 서울사무소장 하봉채 △동북청 조사지원과장 유상종 △〃 지역통계과장 유영호 △〃 경제조사과장 윤종호 △〃 사회조사과장 원정연 △〃 농어업조사과장 최인범 △〃 춘천사무소장 김응하 △〃 안동사무소장 유상길 △호남청 조사지원과장 임철규 △〃 지역통계과장 송금영 △〃 농어업조사과장 박순찬 △〃 전주사무소장 김원태 △〃 제주사무소장 홍성희 △동남청 조사지원과장 유호준 <br/><br/>■문화재청 ◇3급 승진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박한규 △경복궁관리소장 부이사관 우경준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장 부이사관 조운연 ◇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장철호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김동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한옥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여성희 △〃 궁능문화재과 기술서기관 이정연 ◇과장급 전보 △대변인 서기관 박희웅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김동하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기술서기관 곽수철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서기관 김종승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상걸 △〃 근대문화재과장 서기관 안형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이정훈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이선준 △창덕궁관리소장 서기관 이문갑 △덕수궁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오성환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김병기 △〃 연구기획과장 학예연구관 이상준 △〃 고고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임승경 △〃 미술문화재연구실장 학예연구관 박대남 △〃 보존과학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임종덕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이종훈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이규훈 △〃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학예연구관 이동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김용휘 △〃 전시홍보과장 학예연구관 문동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유건상 <br/><br/>■산림청 ◇과장급 △통계담당관 신재희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br/><br/>■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김길상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진수웅 <br/><br/>■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반상권 ◇과장급 △행정법무담당관 장대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김성욱<br/><br/>■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 윤재영 <br/><br/>■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정채용 △정보이사 김진성 △경영기획본부장 엄재성 △정보기술본부장 최재항 △기획총괄부장 김유석 △포털운영부장 직무대리 김시용 △시스템품질부장 직무대리 심혜숙 △복지정보개발부장 한승원 △사회서비스사업부장 정희정<br/><br/>■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성과확산팀장 책임관리원 최종상 <br/><br/>■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홍현표 옥영수 △연구위원 박광서 박수진 장원근 장홍석 김태일 하태영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봉태 이호춘 △전문연구원 김세원 신수환 이지은 박성화 윤재웅 안영균 △책임행정원 임영균 △선임행정원 유주영 ◇보직임명·부서이동 △수산업관측센터 연구감리위원 옥영수 △수산연구본부 연구감리위원 홍현표 △감사실장 정흥교 △수산업관측센터장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 장홍석 △인재개발실장 이제영 △재무회계실장 임영균 △행정지원실장 오성휘<br/><br/>■국립암센터 ◇연구소 △이행성연구부장 김용연 △융합기술연구부장 이상진 △임상의학연구부장 김호진 △암생물학연구부장 이창헌 △암역학예방연구부장 최일주 △암중개연구과장 및 유세포분석실장 공선영 △생체표지자연구과장 직무대리 서호경 △비교생명의학연구과장 직무대리 윤경실 △분자영상연구과장 및 동물분자영상실장 김석기 △면역치료연구과장 및 현미경영상실장 박은정 △혁신의료기술연구과장 손대경 △입자치료연구과장 김상수 △정밀의료연구과장 장희진 △신표적탐색연구과장 직무대리 김선신 △호발암연구과장 류근원 △희귀난치암연구과장 직무대리 최성원 △암발생전이연구과장 직무대리 김경태 △암미세환경연구과장 직무대리 배영기 △암역학연구과장 김미경 △바이오메트릭스연구과장 직무대리 및 의학통계분석실장 주정남 △암환자헬스케어연구과장 직무대리 정소연 △임상유전체분석실장 홍동완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생존자지원과장 직무대리 양형국<br/><br/>■동국대 ◇법인 파견 △의료원 일산행정처장 김재선 ◇전보 △남산학사 겸 고양학사 관장 허광도 △미래캠퍼스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신기훈 <경주캠퍼스> △국제교류팀장 겸 국제학생지원센터장 겸 국제학생교육센터장 박득현 △불교문화대학원·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장 박치만 △경영대학원·상경대학 학사운영실장 배병국<br/><br/>■경북대 △사범대학장 박윤배 △과학기술대학장 이광호<br/><br/>■한양대 ◇서울캠퍼스 △입학처장 정재찬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 권태원<br/><br/>■한성대 △기획처장 윤경준 △총무처장 조자연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서은경 △국방과학대학원장 구형회 △행정대학원장 전주상 △IPP사업단장 및 교육혁신원장(교무처장 겸임) 조세홍 △벤처창업지원센터장 및 산학협력 부단장 김상현 △미래경영연구원장 홍용식 △창업지원단장 홍정완 △국제교류원장 및 언어교육센터장 김승천 △IPP사업단 부단장 장명희 <br/><br/>■부산대 △생활환경대학장 김희화 △예술대학장 박은화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준우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조봉혜<br/><br/>■아주대 △사회과학대학장 김병관 △대학원장 장중순 △공공정책대학원장 김흥식 △공학대학원장 이건모 △교통·ITS대학원장 이철기 △교무처장 장우진 △연구정보처장 최정주 △기획처장 이중섭 △입학처장 이선이 △국제협력처장 소병천 <br/><br/>■아주대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박해심 △대외협력실장 신규태<br/><br/>■대구대 △교육대학원장 및 특수교육대학원장 이해균 △경상대학장 이원돈 △자연과학대학장 김종태 △조형예술대학장 및 디자인대학원장 정준현 △사범대학장 및 교원양성지원센터 소장 정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및 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단장 전은영 △중앙박물관장 윤재운 △언론출판문화원장 이가연 △교육대학원 부원장 및 특수교육대학원 부원장 박용찬 △산학융합부단장 박세현 △창업전담부단장 및 창업보육센터 소장 권순재 △듀얼공동훈련센터 소장 박경수 △HACCP교육원장 김성호 △LINC성과 확산추진단장 최병재 △LINC성과 확산추진단 사업관리실장 장중혁 △〃 〃 교육지원실장 안성훈 △창업지원센터 소장 정인준 △창업교육센터 소장 이재현 △고령사회연구소장 김미령 △소프트웨어교육센터 소장 강신재 △부속농장장 조익환 △부속연습림장 안세희 <br/><br/>■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양무진 <br/><br/>■조선일보 ◇승진 △발행인·편집인·인쇄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 홍준호 △부사장 방준오 △주필 양상훈 △AD본부장 이광회<br/><br/>■스포츠조선 △편집국 모바일팀장 김성원 △편집국 편집팀장 양명우 △사업팀장 최재성<br/><br/>■캠코 △부사장 이우승

언론사: 경향신문-3-417.txt

제목: 보험료 저렴해서 ‘갱신형’ 들었더니 계속 오르네··· 체크포인트 5가지  
날짜: 20170228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173129001  
ID: 01100101.2017022817312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40세 직장인 ㄱ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한참 뒤 갱신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상품 안내장을 펼쳐보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음을 알게 됐다. ㄱ씨처럼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br/><br/>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28일 안내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계약유지 기간이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중도해지시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갱신형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기간마다 오를 수 있어 퇴직 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나이 들어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확인해봐야 한다.<br/><br/>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보험설계사 또는 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최근들어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보험료와 수수료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br/><br/>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위험보장 목적이라면 보장형 상품을, 장기목돈 마련이라면 저축성 보험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만기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고, 저축성 보험은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8.txt

제목: ‘암살자’ H5N8형 AI 활동시작, 서해안 벨트에서 기승  
날짜: 20170228  
기자: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144431001  
ID: 01100101.20170228144431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세로 돌아섰다. 전남·북과 충남 등 서해안 벨트에서 기존 H5N6형 바이러스와 다른 H5N8형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겨울을 난 철새들이 북상하는 시점과 맞물려 ‘최악의 AI’가 길어질 전망이다.<br/><br/><br/><br/>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충남 홍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8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27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육계 대기업 하림이 직영하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26일에는 전남 강진의 오리농가에서 AI가 터졌다. 이들 농장의 바이러스 유형은 아직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br/><br/>지난 6일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최초 발병한 H5N8형 AI는 보름 만인 지난 21~22일 전남 해남 육용오리 농가, 충남 청양 산란계 농가에서 잇달아 검출됐다. 지난 24일에는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H5N8형 AI가 나왔다.<br/><br/>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긴 H5N8형 AI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들 농장에서는 이달 초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고창에서는 야생조류에서 H5N8형 AI가 검출됐다. 지난 1일 홍성, 9일 순창, 23일 청양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왔다.<br/><br/>이번 겨울에 역대 최대규모 살처분을 부른 H5N6형 AI는 광범위한 전파력과 빠른 발병속도가 특징이어서 ‘학살자’에 비유되곤 한다. 반면 H5N8형 AI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암살자’에 가깝다. 잠복기가 3~7일로 짧은 H5N6형과 달리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어 감염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 특히 오리는 H5N8형 AI에 감염돼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잘 죽지 않고 견디는 특성이 있다.<br/><br/>최근 새롭게 접수되는 의심신고가 오리농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H5N8형 AI가 확산세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H5N6형 AI는 전체 살처분 3344만마리 중 산란계가 2370마리를 차지하는 등 산란계 농장에 집중됐으나 최근 AI는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이후 발생한 7건 AI 중 절반 이상이 오리농장이었다. 현재 바이러스 유형을 검사 중인 전남 강진, 전북 익산, 충남 홍성의 AI가 H5N8형으로 결론난다면 역대 최악의 AI가 두번째 국면을 맞게 된다.<br/><br/>농식품부는 오늘부터 내달 1일 오후 12시까지 전남·북과 광주 지역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H5N8형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H5N8형 AI는 잠복기가 길고 폐사율이 낮으며 특히 오리에서 감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들 농장에서 그간 차단방역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H5N8형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져있을 수도 있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19.txt

제목: ‘허위과장’ 광고성 게시글 올린 개인 블로거들, 무더기 고발조치  
날짜: 20170228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144023001  
ID: 01100101.2017022814402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br/><br/>식약처는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건네준 허위 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span class='quot0'>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span>”는 등의 글을 작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다.<br/><br/>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를 대신해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광고성 글을 실어주는 블로그 운영자는 ‘파워블로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0.txt

제목: 보험 가입 때 ‘갱신형’ 여부 꼭 따져보세요  
날짜: 20170228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8120120001  
ID: 01100101.20170228120120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ㆍ금감원, 필수 확인 사항 가이드<br/><br/><br/><br/>40세 직장인 ㄱ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한참 뒤 갱신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상품 안내장을 펼쳐보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다. ㄱ씨처럼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br/><br/>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28일 안내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계약 유지 기간이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중도해지 시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br/><br/>갱신형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오를 수 있어 퇴직 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나이 들어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확인해봐야 한다.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보험설계사 또는 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최근 들어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보험료와 수수료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br/><br/>해당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위험 보장 목적이라면 보장형 상품을, 장기목돈 마련이라면 저축성 보험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고, 저축성 보험은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1.txt

제목: 소변으로 암 진단 길 열렸다  
날짜: 20170227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7203437001  
ID: 01100101.2017022720343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유니스트, 유전정보 ‘나노 소포체’ 검출 성공…질병 유무 파악 가능<br/><br/><br/><br/>유니스트는 27일 조윤경 교수연구팀(생명과학부)이 ‘나노 소포체’를 분리, 검출하는 장치인 ‘엑소디스크(exodisc·디스크 모양으로 각종 생화학 반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칩·사진)’를 제작해 소변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br/>나노 소포체는 세포 활동 중에 나오는 40~1000㎚(1㎚=10억분의 1ｍ) 크기의 생체물질이다. 이는 종양의 진행·전이 또는 세포의 신호전달에 기여하면서 어떤 세포에서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유전정보도 갖고 있다. <br/><br/>조 교수팀은 엑소디스크를 활용하면 초고속 원심분리기가 없어도 생체물질을 분리해 검출할 수 있고, 검출된 물질을 분석하면 암 등 각종 질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팀은 엑소디스크를 이용해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검출한 나노 소포체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엑소디스크의 개발은 기존 조직검사 기반의 암 진단 대신 소변이나 혈액 등 체액으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2.txt

제목: [기업특집]한국야쿠르트 - 한국형 미생물 연구…16년간 34억만개 ‘국민 발효유’  
날짜: 20170227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7201145002  
ID: 01100101.20170227201145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이 건강 키워드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br/><br/>최근 장내 미생물이 비만, 치매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br/><br/>특히 한국형 미생물 연구는 외화절약 및 생물자원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r/><br/>한국형 미생물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형 유산균 메카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의 중앙연구소다. 한국야쿠르트가 식품업계 최초로 1976년 경기 기흥에 설립한 중앙연구소는 현재 4000여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특허등록 142건, 특허균주 56종, 제품 적용 유산균 22종을 갖춰 국산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에 진일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중앙연구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한 종균에 의존한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1995년 국내 최초로 비피더스 유산균 균주 개발에 성공하며 유산균 독립도 이뤄냈다. 1996년에는 식품업계 최초로 국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며 한국형 유산균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br/><br/>균주 라이브러리 구축의 성과는 야쿠르트, 윌, 쿠퍼스와 같은 제품 탄생으로 이어졌다. 중앙연구소의 5가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2000년 출시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30만개 이상 판매되며 이후 16년 동안 약 34억만개가 팔린 국민 발효유로 자리 잡았다. <br/><br/>심재헌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인체 내 미생물을 일컫는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연구가 미래를 바꿀 10대 신기술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중앙연구소는 한국형 유산균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3.txt

제목: 증가하는 고령인구, 더 빨리 증가하는 진료비 부담  
날짜: 20170227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7144542001  
ID: 01100101.201702271445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근접했다. <br/><br/>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통으로 발표했다. <br/><br/>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진료(비급여 진료 제외)에 대한 전체 진료비(환자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합친 금액)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원(11.4%)이 증가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건강보험공단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보장강화, 임플란트 등 치과 보험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비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br/><br/>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혜택인구)의 12.7%(645만명)에 그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8.7%에 해당하는 25조187억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보다 3만2840원이 늘었다.지난해 진료인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를 많이 받은 질병은 입원진료의 경우 노년 백내장(19만9039명), 치매(9만3414명), 폐렴(8만7300명) 등이었고, 외래진료는 본태성 고혈압(250만1963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14만7596명), 급성 기관지염(181만7590명) 등이었다.<br/><br/>지난해 부과된 총보험료는 47조5931억원(직장가입자 39조9446억원, 지역가입자 7조6485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부과된 총보험료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7조4428억원(직장가입자 39조8675억원, 지역가입자 7조5753억원)이었다.<br/><br/>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직장·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전체 가입자 1가구당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9만8128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가입자격별로 1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10만4507원, 지역가입자는 8만4531원이었다.<br/><br/>대형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보다 22.8%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에 지급된 진료비의 8.1%를 차지한다.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이 가운데 직장 적용인구(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3667만5000명, 지역 적용인구는 1408만9000명이었다.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88만명이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4.txt

제목: 유니스트 조윤경 교수팀 “소변으로 암 진단 가능성 열었다”  
날짜: 20170227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7122231001  
ID: 01100101.2017022712223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니스트는 27일 조윤경 교수연구팀(생명과학부)이 소변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노 소포체’를 분리하고 검출하는 장치인 ‘엑소디스크(exodisc)’를 만들었다는 것이다.<br/><br/>나노 소포체는 세포 활동 중에 나오는 40∼1000㎚(1㎚=10억분의 1ｍ) 크기의 생체물질이다. 이는 종양의 진행 또는 전이 및 세포 신호전달에 기여하면서 어떤 세포에서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유전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분석하면 암 등 각종 질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조 교수팀은 밝혔다.<br/><br/>지금까지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세포를 분리하는 원심분리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초고속 원심분리기가 필요했다.조 교수팀은 엑소디스크(랩온어디스크·lab-on-a-disc·디스크 모양의 칩에 미세구조들이 일체화돼 각종 생화학 반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칩)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원심력을 키우지 않아도 미세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필터를 추가해 초고속 원심분리법보다 300배 낮은 원심력으로도 나노 소포체를 회수할 수 있다.<br/><br/>조 교수팀은 “<span class='quot0'>엑소디스크의 칩 안에 두 종류의 필터(20㎚, 600㎚)가 설치돼 크기별로 입자를 분리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소변을 엑소디스크에 넣고 구동시키면 20㎚ 보다 크고 600㎚ 보다 작은 입자만 걸러내 농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팀은 “<span class='quot0'>이런 방법으로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검출한 나노 소포체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조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조직검사 기반의 암 진단 대신 소변이나 혈액 등 체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span>”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팀은 나노 소포체를 분석해 암 등의 질병을 판단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중이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28일자로 게재된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5.txt

제목: 최순실 일가 은닉 재산환수, 특검 70일은 너무 짧았다  
날짜: 20170225  
기자: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5135556001  
ID: 01100101.20170225135556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70여일에 걸친 특검수사에서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수사는 성공적이었을까.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는 과연 가능할까. 최순실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해온 한 전직 지방 국세청장은 “향후 특검 안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주어지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결국 차기정권의 몫이자 차기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30%나 될까요.” <br/><br/>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말이다. 최순실 은닉재산 중 몇 %나 규명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br/><br/>안 의원의 말이다. <br/><br/>“진실의 절반도 안 나왔다. 그 절반조차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그냥 묻어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절반을 캐내면서 다시 한 번 전체 진실을 파헤칠 것이냐.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br/><br/>국회 의원회관 620호 안민석 의원실 안에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그동안 안민석 의원 등이 추적해온 최순실 재산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br/><br/>기본 골격은 <주간경향>이 공개했던 안기부 작성 최태민 가계도다. (<주간경향> 1205호, ‘마침내 실마리 드러난 최태민 가계도의 미스터리’ 기사 참조) <br/><br/>1989년 작성된 이 가계도(한자 표기는 가계보(家系譜)로 돼 있다)는 당시까지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br/><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축인 최순실·정윤회, 그리고 딸 정유라 관계는 기술돼 있지 않다. <br/><br/>아버지 최태민과 어머니 임선이로부터 재산이 상속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br/><br/>게다가 <주간경향>의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최태민과 임선이의 생몰연도도 묘비 등을 통해 밝혀진 실제 정보와 달랐다. 주민등록상 신고돼 있는 정보 위주이기 때문이다. <br/><br/>구국봉사단-육영재단-영남대-한국문화재단 등을 거치며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일가 자산은 최태민씨와 임선이씨 사후(각각 1994년, 2003년) 어머니 임씨를 축으로 최씨와 임씨 일가를 통해 분산됐다. <br/><br/><주간경향>은 앞서의 기사에서 취재를 바탕으로 최씨 일가 은닉재산의 전체 규모가 규명되려면 1989년 안기부가 작성한 가계도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하며, 특히 은닉재산의 절반 정도가 차명된 것으로 보이는 임씨 일가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br/><br/><br/><br/>89년엔 무직, 2017년엔 성공한 회사 대표?<br/><br/>특검 70일,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어느 정도 규명됐을까. <br/><br/><경향신문>은 2월 24일 “박영수 특검팀이 차명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재산규모가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br/><br/>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은닉 예상 규모가 수천억대에서 많게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명된 부분은 작다. <br/><br/>지난해 12월 22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4개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1팀에서 3팀은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가 팀장을 맡아 진행했고, 1팀이 정유라·장시호 관계를, 2팀이 세월호 7시간을, 4팀이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병우·김기춘 사건은 4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이 전담해 맡았었다. <br/><br/>최씨 일가의 재산관계는 박영수 특검 직속의 ‘재산 추적 전담팀’이 만들어져 별도로 추적해 왔다.<br/><br/><br/><br/> <br/><br/>특검 관계자는 2월 22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임씨 일가로 은닉된 재산과 관련해 4명을 소환했으나 전체 관련자들이 다 출석하지는 않았다</span>”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피의자라면 인지 피의사실이 적시되고 소명자료가 붙어야 하는데, (임씨 일가 관련으로는) 그 정도까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개별 사안별로 소환해야 하는데,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할 경우 본인이 부인하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span>”고 덧붙였다.<br/><br/>1989년 작성된 최씨 일가의 가계도를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해보면 무엇보다도 최순실씨뿐 아니라, 자매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br/><br/>안 의원은 가계도에 무직으로 표기돼 있는 최태민씨의 장녀 최순영(69)의 남편 이용식씨(68)의 경우 3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태민씨의 6녀 최순천(58)·서동범(58)씨 부부도 최소 3개 회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r/><br/>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와 관계된 회사들의 리스트는 대부분 밝혀졌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녀 최순득(64)·장석칠(63) 부부의 동산 관계다. 국내외에 걸쳐 약 30여개 회사의 투자자이거나 실소유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주간경향>이 공개한 가계도에는 장씨가 “<span class='quot2'>강남 뉴코아백화점 5층에서 리바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span>”고 적혀 있다. <br/><br/>부친과 모친 사망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이외에 이들 회사의 자산가치만 하더라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r/><br/>특검은 장석칠씨와 부인 최순득씨를 소환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br/>특검에 출석한 장씨는 “<span class='quot2'>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강남 개발 붐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를 납품해 돈을 벌 수 있었다</span>”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태민씨의 배 다른 아들 최재석씨는 2월 22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3'>가구점은 망해서 문을 닫았으며, 관련해서는 조카 최용석씨가 그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특검도 사정을 청취할 수 있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가구점은 명목만 걸어놓은 것이었으며 주된 일은 임대업과 사채업이었다</span>”고 주장했다.(박스 인터뷰 기사 참조) <br/><br/>임선이씨가 하던 사채업을 이어받아 하는 관계였으며,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된 김찬경씨는 임선이씨와 김씨의 어머니 인연으로 돈을 빌리면서 장석칠씨와 친분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br/><br/><br/><br/>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수법들’<br/><br/>어쨌든 여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 자산과 관련한 부분이다. 안민석 의원 등은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일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br/><br/>국회 국정조사 기간인 지난해 12월 중순 독일에 해외 은닉재산 조사를 다녀온 안 의원 등은 2월 말 다시 독일을 방문해 추가조사를 한다. <br/><br/>안 의원은 “<span class='quot4'>일단 한 달 반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관계자들도 접촉을 시도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4'>독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계속 관련 조사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br/>안 의원팀의 독일 일정에는 말 구입과 관련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삼성 고위임원 방문면담 계획도 포함돼 있다. <br/><br/>안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조사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다. <br/><br/>안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도곡동 땅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br/><br/>2월 21일 <주간경향>을 만난 안원구 전 청장은 “<span class='quot5'>집에서 국정조사 중계를 TV로 보고 있는데,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장관들마저 너무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화가 났었다</span>”라며 “<span class='quot5'>과거 청와대에서 7년을 근무한 경험 상 그들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질문에 대한 팁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 팀 합류의 계기</span>”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먼저 안 전 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br/><br/>지난 1차 독일 현지조사 당시 안 의원과 동행했던 안 전 청장은 “<span class='quot6'>안 의원이 현지교민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검토해보니 숨겨놓은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왜 하필이면 독일을 선택했을까 궁금해 독일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 <br/><br/>다음은 안 청장의 말이다. <br/><br/>“독일은 사회민주주의적 제도가 잘 확립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 개념이 없는 나라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없으니 단속도 그동안은 없었다. 반면 금융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은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독일을 택한 이유는 법인 설립이 쉽고 법인에 부동산을 숨기면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독일 통일이 된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동독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br/><br/>안 전 청장은 최순실의 은닉재산 의혹이 제기된 독일 회사들을 보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특유의 ‘수법’도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br/><br/>“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돈을 보낼 때는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하는 것이 또 눈에 띈다. 다시 말해 가격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GmbH, 다시 말해 유한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약 2만5000 유로(한화 약 3000만원)면 사람 3명이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공개해야 하는데, 유한회사는 공개할 필요도 없고 개설하는 데 수수료 역시 크게 안 든다.” <br/><br/>여기서 드는 의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 <br/><br/>정윤회·최순실씨가 정식 부부가 되기 전인 1991년 6월 한국에서 만든 ‘얀슨’ 회사에 이어 1992년 독일에 만든 유벨(Jubel) 수출입 회사는 독일 체류 편의상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br/>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는 적지 않다. <br/><br/>최순실 관계회사로 추정됐던 ‘원세 트레이드 앤드 트래블(Won Se Trade & Travel GmbH)’ 등의 설립에 관여돼 있는 사광기 전 세계일보 사장은 <주간경향>에 “<span class='quot7'>1995년 독일에 법인을 설립한 원세는 1986년 한국에서 설립한 원세무역, 원세상사가 모태</span>”라며 “<span class='quot7'>독일에 건너갈 때 비자가 없어 못 건너가는 사람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span>”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7'>당시 독일 현지교민인 대학 후배가 도움을 요청에 일부 자금을 댔을 뿐 최순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span>”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특검은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과 관련해 사광기씨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박 대통령, 왜 해외투자 2조 수치 제시했을까 <br/><br/>그러나 안 청장은 체류비자로 맺어진 관계가 ‘재산은닉에 최씨 일가가 아닌 사람들이 끌어들여진 계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br/><br/>“독일의 체류비자 발급 조건은 3개월 동안 월급받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유한회사를 만들 때 최소 인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재독광부나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 현지 한인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쪽에 협조적이다. 최순실씨 등은 유벨을 만들 때는 자기 이름을 썼다.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게 분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름 세탁이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씨 일가들의 특징이 자기 이름도 개명하지만 회사 이름도 개명하는 것도 특징이다.” <br/><br/>이렇게 분산된 회사들의 특징은 최씨 일가들이 애초에 친인척관계를 통해 재산을 분산했던 것처럼 친인척 조력자들을 통해 은닉재산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br/><br/>“차명한 사람들이 자신들 몫의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되니 부채를 통해 얽매는 방식이 주로 동원된다. 부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팔 수도 없고, 실제 최씨 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br/><br/>안 전 청장 등은 특히 2013년 8월 1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2조’라는 해외투자 수치를 거론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br/><br/>“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br/><br/><br/><br/>다시 안 전 청장의 말. <br/><br/>“2조원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제시된 것일까. 통상적으로 돈을 들여오려는 쪽이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봤는가. 2조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을 보면 한 기관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하려는 전체 금액을 취합했다는 이야기인데, 관련된 투자 예상 액수를 기관별로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br/><br/>다시 말해, 2조라는 투자금액은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흔히 금융계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해외 은닉 불법자금이며, 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낮은 금리에 임대료도 싸게 할 수 있는 등 특혜를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br/><br/><br/><br/>정윤회 소환 실패한 박영수 특검 <br/><br/>70일간의 특검 수사에서 제일 의아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마지막까지 소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br/><br/>특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여러 경로를 통해 정씨를 소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특검의 조사대상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구인을 할 수는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br/>특검에 출두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윤회씨는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제3자 입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br/><br/>정윤회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제3자’가 맞을까. <br/><br/>2월 9일 경제전문 인터넷 신문 <비즈한국>이 보도한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끌었다. <br/><br/>호텔 방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는 인물은 정윤회씨로 보인다.<br/><br/><주간경향>은 정윤회씨의 동생 정민회씨가 한때 회사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아이카이스트 사기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br/><br/>부지기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들은 정윤회·최순실씨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br/><br/>정윤회씨가 박 대통령과 거의 같은 포즈로 같은 기기를 조작하는 사진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사진이다. <br/><br/><비즈한국>에 따르면 정윤회씨의 사진은 감옥에 수감 중인 현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측이 입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이 회사의 전시부스 등을 방문해 시스템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 사진은 실제 최종적으로 사기사건으로 결론난 아이카이스트 사건에 박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이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물증이다. 이 역시 ‘비선의 이권개입’ 사건으로 앞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다. <br/><br/>“독일에 재산은 한 푼도 없다. 있으면 몰수해도 된다.” <br/><br/>지난해 12월 26일,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나온 최순실씨의 발언이다.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강제구인된 최씨는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한푼도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안민석 의원은 “<span class='quot8'>최순실씨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8'>이 시건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이런 ‘말맞추기’를 치밀하게 해왔다고 본다</span>”고 말했다. <br/><br/>70일에 걸친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씨를 비롯한 최씨 일가 은닉재산 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br/><br/>실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다. 안원구 전 청장은 “<span class='quot5'>최순실씨 케이스보다 오래전 일인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환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사람들 후손까지 추징하지 않았느냐</span>”며 “<span class='quot5'>특검 안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주어지면 최종적인 규명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해볼 만하다</span>”고 말한다. <br/><br/>결국 차기 정권의 법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br/><br/>특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원하는 만큼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두 달여의 특검 기간 중 특히 재산조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국세청이나 감사원 등 유관기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pan>”라며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span class='quot0'>정권이 바뀐 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만들어져 특검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안민석 의원은 “<span class='quot8'>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기 정부의 몫이자 차기 대통령의 의지로 넘어갔다</span>”며 “<span class='quot8'>만약 차기 대통령이 용서하고 화해하자면 묻히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의의 세력을 단절해야 한다면 차후에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나 상설특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덧붙였다. <br/><br/><br/><br/> <br/><br/>‘최태민씨 아들’ 최재석 인터뷰 <br/><br/>“<span class='quot9'>재산환수 못한다면 개인 소송을 해서라도 사회에 환원할 것</span>”<br/><br/><br/><br/>최씨 일가의 재산은닉 규명에 있어 최태민씨의 세 번째 아들인 최재석씨(62)는 재산 축재과정과 은닉 등을 증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인사다. 그로부터 최씨 재산은닉 정황을 들어봤다. <br/><br/><br/><br/>특검에 출석해 알고 있는 임씨 일가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 <br/><br/>“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임씨 쪽으로 간 최순실 재산관계도 밝힌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br/><br/>안기부 작성 가계도를 보면 최태민의 ‘넷째 처의 자’로 돼 있다. 어머님이 김제복씨인가. 합수부의 최태민 보고서에 따르면 김제복은 여섯 번째 처로 돼 있는데. <br/><br/>“우리 어머니가 김제복이 맞다. 안기부 가계도가 잘못된 것이다.”<br/><br/>안기부 자료를 보면 장석칠은 가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사채업 관련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인가. <br/><br/>“1989년 이후부터 계속했다. 부인 최순득과 같이 했다. 돈은 최순득이 관리했고, 장석칠은 돈이 없으니 행동대장을 했다.” <br/><br/>최순영씨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정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br/><br/>“정확히는 모르겠다. 임선이씨 주변에 남매가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동생인가 오빠인가를 한두 번씩 봤다.” <br/><br/>최순영씨는 임선이씨가 밖에서 낳아서 데리고온 사람인데, 왜 최씨가 되었나. 안기부 자료에도 조순영으로 돼 있다. 최태민씨 묘비에는 최순영으로 기재돼 있다. <br/><br/>“임선이가 낳은 딸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최태민)가 호적에 올려줬다. 당시 임선이가 아들 조순제가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 아들이 있는지는 아버지도 몰랐다.”<br/><br/>조순제씨 부인은 살아있는가. 이른바 조순제 녹취록을 보면 간호사 출신으로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는 관계라고 나와 있다. <br/><br/>“부산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지는 오래됐다. 이름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br/><br/>장석칠은 특검에서 가구를 팔아 돈을 벌어 재산을 일궜다고 진술했다. <br/><br/>“거짓말이다. 망해서 문을 닫았다. 조카 최용석이 거기서 근무했다. 그쪽에서 그나마 돈을 번 건 최순실이 독일에서 몬테소리 들여와 했던 유치원이다. 그래도 그걸 해서 몇 조를 어떻게 버나. 건물과 부동산 구입한 건 다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br/><br/>정윤회씨는 알고 있었나. <br/><br/>“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깡패를 보내 합의서를 쓰게 했다. 장석칠과 같이. 나는 매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장 사장이라고 불렀다. 정윤회도 그렇고 얼굴은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여자에게 붙어 뜯어먹는 사람들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순득이 암 말기라고 하는데, 죽으면 다 장씨 재산이 될 것 아닌가. 지금은 오리발을 내밀고 무조건 부인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출입국 관리만 풀리면 해외로 도망갈 것으로 본다.” <br/><br/>최재석씨가 최씨 일가 관련 재산에 대해 폭로하는 것이 사업관계로 어려워지자 돈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br/><br/>“솔직히 돈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강탈당한 것이니 나도 기회는 보고 있었을 것 아닌가. 정부가 재산환수를 못한다면 나라도 개인적으로 청구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다. 내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돈을 뺏어서 사회에 환원해 공익재단을 만들어, 거기 고문 정도 시켜준다면 족하다.” <br/><br/>최순실 등이 빼돌린 아버지 재산규모에 대해 말이 엇갈린다. 수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조에 이른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br/><br/>“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별 이야기를 다했다. 내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니 아버지가 삼청각에 데리고 갔다. 거기서 기생 하나 붙여주더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 재산문제와 아버지 타살 문제를 거론하니 그쪽에서 지금도 나를 미행하고 있다.” <br/><br/>누가 한다고 보나. <br/><br/>“<span class='quot9'>정윤회가 시키는 거 아니겠나.</span>”<br/> <br/><br/><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6.txt

제목: 대상포진, 통증 치료 우선되는 병원 찾아야  
날짜: 2017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4145026001  
ID: 01100101.201702241450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겨우내 부족해진 활동량에 따라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각종 질병들이 성행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젊은 층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흔히 중장년층 이상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좋지 않은 식습관과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br/><br/>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기준 64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20대는 4만4000명, 30대는 7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대상포진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신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과 함께 물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출산통이나 암 환자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것으로 일부 중장년층, 노인층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br/><br/>대상포진이 발병하면 피부 병변의 치료와 함께 항바이러스 제제를 통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단순히 피부 병변만을 보고 피부과나 내과를 찾는 경우 초기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br/><br/>대상포진 환자 중의 일부는 피부 발진이 완전히 치료된 이후에도 신경통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만성 신경통이 지속되는 경우는 나이에 비례하여 나타나므로 연령대가 높은 대상포진 환자일수록 신경통에 대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br/><br/>수원 기찬마취통증의학과 한경림 원장은 “<span class='quot0'>피부 병변보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큰 질환이 대상포진이다</span>”라고 말하여 “<span class='quot0'>조기에 통증에 대비한 약물 치료나 대상포진 발병신경에 대한 신경치료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으면 더욱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통증에 대비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br/>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 상태를 회복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대상포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발병 이후 음주와 흡연,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햇볕 노출을 통한 비타민 D 보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언론사: 경향신문-3-427.txt

제목: [경향의 눈]오베, 다니엘 블레이크, 태극기 노인  
날짜: 20170222  
기자: 박구재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2210829002  
ID: 01100101.20170222210829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의 주인공 오베는 독거노인이다. 강퍅한 심성을 지닌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대거리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투덜거리면서도 해결사로 나선다. 오베는 ‘애국 노인’이다. 평생 국산차 ‘사브’만 탔다. 독일산 BMW를 모는 운전자와는 말도 섞지 않는다. 오베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위압적인 공무원들을 혐오한다. 젊은 시절 오베는 성실한 철도회사 노동자였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지만 특수학교 교사가 된 아내 소냐는 “<span class='quot0'>죽지 않으려면 죽을 만큼 버텨야 한다</span>”며 오베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줬다.<br/><br/>그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43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오베는 ‘고집불통 할배’가 됐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는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며 소냐 곁으로 가려 한다. 오베의 자살을 막고, 세상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젊은 이란인 부부와 이웃들이었다.<br/><br/>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다. 40년간 목수로 일한 그는 모범시민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니엘은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질병수당과 실업수당을 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한다.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담당 공무원의 관료주의는 다니엘에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다. 가구까지 팔면서 버텨보려는 그에게 사회복지기관은 “가난과 질병을 증명하라”며 지원이 아닌 모욕을 준다. 영국 보수당 정권의 복지축소 정책은 다니엘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자존심마저 짓밟는다.<br/><br/>다니엘이 심장마비로 숨지기 전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던 항고이유서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는 절규가 담겨 있다. <br/><br/>“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니다.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니다.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의 점도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닌 인간이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떳떳하게 살아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br/><br/>노인들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다. 오베와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가에게 노인이란 나랏돈을 들여 보살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일 따름이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차고 넘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 중 1위다. 노인 인구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개발독재시대를 견뎌낸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돼 주변부로 밀려난 지 오래다.<br/><br/>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매주 서울광장에 집결하는 ‘태극기 노인’들은 다르다. 이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억지탄핵 원천무효’ ‘탄핵을 탄핵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친다. 태극기 노인들은 오베와 블레이크처럼 힘없고 나약한 어르신들이 아니다.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들을 ‘애국 보수노인’으로 부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태극기 노인들은 ‘노켓일베’ ‘프리덤 뉴스’ 등 극우성향의 매체를 신뢰한다. “<span class='quot1'>촛불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span>” “좌파언론은 남파 인민군들”이란 가짜 뉴스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마음에 드는 뉴스를 골라 수용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통해 집단적 자기방어기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숨죽이고 있던 친박 정치인들도 태극기 집회 때마다 연단에 올라 “<span class='quot2'>잔인무도한 폭도들을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span>”(김문수 전 경기지사) “<span class='quot2'>광장의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span>”(이인제 전 의원)이란 선동을 일삼는다. 보수세력의 재결집을 꾀하려 태극기 노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꼴이다.<br/><br/>오베와 다니엘은 노인들을 고독과 소외, 빈곤의 늪에 빠뜨린 국가와 사회에 분노했다. 하지만 태극기 노인들은 나라를 망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애국이 아닌 망국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불쌍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믿고 있는 태극기 노인들에게 촛불시민들이 해줄 말이 있다면 이런 것일 터이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br/><br/>“박근혜는 능력도, 선의도, 진실도, 소신도 없었다. 거짓, 탐욕, 부당거래, 정치적 술수만 있었다. 국정을 비선 실세에게 맡기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떳떳하게 살지도 않았다. 박근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범법자이자 피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br/><br/><박구재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3-428.txt

제목: 80명 사는 시골마을에 10명이 암으로 숨지고 5명은 투병중  
날짜: 20170222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2143122001  
ID: 01100101.20170222143122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암 환자가 집단발병하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br/><br/>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45가구 80여명이 살고 있는 장점마을에서 수년전부터 암환자가 나타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10명이 숨졌고, 5명이 투병중인 것으로 밝혀졌다.<br/><br/>암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 마을 인구는 70명으로 줄었다. <br/><br/>주민들은 갑자기 암 발병이 시작된 원인을 2000년대 초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비료공장에서 흘러든 오염된 지하수가 암을 발병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교공장이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익산시는 악취·침출수 민원과 함께 암 환자 발생 원인을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 환경조사를 벌였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br/><br/>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은 “<span class='quot0'>해당 비료공장에서 수질과 악취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공장 굴뚝과 마을 입구 등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지하수와 인근 저수지에서 수질을 측정해 발병 원인을 규명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29.txt

제목: [최보기의 책보기] ‘존엄한 죽음’···’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날짜: 20170222  
기자: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2115157001  
ID: 01100101.2017022211515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존엄한 죽음ㅣ최철주 지음ㅣ메디치 출판ㅣ248쪽<br/><br/><br/><br/>고등학교 때 귀납법과 연역법을 배웠다. 그런데 반드시 암기해야 할 그 법칙들의 예가 하필이면 죽음이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귀납법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다’가 연역법이다. 그 때문인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실재로 닥칠 죽음에 대한 찰나의 걱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죽으면 죽는 것이다.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br/><br/>필자는 아주 오래 전에 <존엄한 죽음>의 저자 최철주 님과 어떤 식사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다. 저자가 언론사에 재직 중이었거나 막 은퇴한 시점으로 기억된다. 그런 만큼 그날 자리는 저자가 좌장 격이었는데 필자가 모르는 어떤 징표가 있었는지 일행 중 한 명이 ‘무슨 일 있으시냐’고 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저자께서 “<span class='quot0'>최근에 딸을 (암으로) 앞서 보냈네… … 그 슬픔을 견디려 노력 중이네</span>”라고 짧게 답했다.<br/><br/>필자는 그때의 저자 목소리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혀 밑까지 차오른 장년 남성의 비통함이 거기에 실려있었기 때문이다. ‘아, 부모 앞서서 가는 자식이 가장 큰 불효라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자식을 떠나 보낸 부모의 마음은 똑 같구나. 그래서 부모 묘는 잘 보이도록 양지바른 언덕에 쓰고, 자식 묘는 안 보이게 깊은 산속에 쓴다는구나’란 생각들도 그 순간 스쳤었다. 그런 저자가 그 몇 년 후 사랑하던 아내마저 불치의 병으로 떠나 보내야 했으니 그 비통함이 오죽할까.<br/><br/>그 슬픔을 이기는 길은 ‘비움’이었고 그래서 수시로 여행에 나섰던 저자는 어느 날부터 ‘존엄한 죽음’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존엄한 죽음은 ‘웰다잉(well dying)’의 다른 말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직전에 둔 말기 암 환자나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환자를 두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 대신 가족이나 의료진이 산소호흡기 등의 기계장치나 생환이 의문인 수술 등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죽음보다 못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것을 뜻한다. 환자가 편안하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건강할 때나 발병 직후 자신의 그런 뜻을 가족, 담당 의료진, 검찰(실정법)에게 미리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저자는 그것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그런데 필자가 독서 직후 곧바로 그 의향서를 작성해 가족들에게 공개했을 정도로 설득력이 강력하다.<br/><br/>가족에게 이런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가 실제 일이 터지면 생기는 난감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뻔한데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많은 가족들이 ‘마지막 효도, 차마 어떻게’라는 심정과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실정법 때문에 환자에게도 고통이고 남은 가족도 고통인 질곡의 길을 ‘선택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꼭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다. 물론 남은 가족들간의 인간관계 파탄이나 병수발에 지친 가족의 발병 등 다른 중요한 이유들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br/><br/>또 하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청력과 신경은 놀랄 정도로 예민하다. 그들에게 가장 지독한 위로가 ‘천당에 가실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 거기다 ‘먼 친척 증후군’도 한 몫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달린 법,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데도 깊은 배려와 기술이 필요하다.<br/><br/>저자는 그 기술들을 자신이 두 번이나 겪은 아픔으로 익혔고, 존엄한 죽음에 관한 오랜 공부를 통해 익혔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특히 나이 오십 넘어 선 감 먼저 떨어질지 익은 감 먼저 떨어질지 모를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보기를 ‘강추’한다. 죽음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말이 ‘자동심장제세동기’만큼이나 너무 어렵다.<br/><br/><최보기 북칼럼니스트>

언론사: 경향신문-3-430.txt

제목: [김성곤·방민호의 현대문학 명장면 20] (20)경직된 청교도주의와 체제에 과감한 도전과 고발…‘미국의 정신’이 된 금서들  
날짜: 20170221  
기자: 김성곤 | 문학평론가·한국문학번역원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21212236001  
ID: 01100101.2017022121223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미국의 금서들과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br/><br/><br/><br/>■미국의 금서들<br/><br/>미국은 자유분방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엄격한 청교도주의 전통 때문인지 유독 금서가 많다. 에컨대 너대니얼 호손의 <주홍글씨>(1850)는 출간되자마자 청교도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켜 1852년에 금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1977년에도 내용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여기저기에서 금지되었다. 허먼 멜빌의 <모비 딕>(1850)은 1996년에 텍사스주 어느 마을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데, 이유는 “마을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br/><br/>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1884)도 어린 소년인 헉 핀이 상스러운 말을 한다는 이유와, 성서와 교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1885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금서가 되었다. 최근에도 헉 핀이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부 미국 초·중·고 도서관에서 금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미 의회도서관이 발표한 ‘미국을 형성한 금서들’ 30권 중 1위를 차지했다.<br/><br/><br/><br/>J 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1951)도 출간되자마자 금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책에 미국에서 출간된 도서 중 최초로 F로 시작되는 욕이 인쇄되어 나왔고,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기성세대의 위선에 반발해 학교를 그만두고 뛰쳐나가는 등 비교육적 내용 때문이었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는 이 소설을 수업시간에 강독한 고교 교사가 해고당했고, 텍사스주에서는 변호사인 학부모가 텍사스 대학 강의 시간에 이 소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다른 대학으로 전학시키는 일도 있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1998년 미국도서관 연합회가 발표한 ‘위대한 금서 50권’ 중 13위에, 그리고 미국 의회도서관이 선정한 ‘미국을 형성한 금서들’에서는 7위에 올라갔다.<br/><br/>그 외에도, 미국 시인 앨런 긴스버그의 장시 <울부짖음>(1956)도 미국에서는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서가 되어 유럽에서 출간된 후 미국으로 역반입되었으며, 조이스의 <율리시스>(1922) 역시 음란성과 교회모독을 이유로 미국에서 금서가 되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었다.<br/><br/><br/><br/>미국의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학교 도서관 측에 금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워낙 금지된 책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서관의 발표처럼, 금서 중에는 미국의 정신을 형성한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금서들은 시대마다 문학의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예컨대 <주홍글씨>는 미국의 경직된 청교도주의에 대한 과감한 도전장이었고, <모비 딕>은 19세기를 지배했던 백인우월주의와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부서지기 쉬운 아메리카의 꿈을 상징하는 뗏목을 타고 항해하는 백인소년 헉과 흑인 도망노예 짐의 우정을 통해 인종 간의 화해를 보여준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 <호밀밭의 파수꾼>은 기성세대와 보수주의의 위선과 허위와 가식에 반발하는 자유주의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문이었고, <울부짖음>은 체제저항적인 비트세대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했다.<br/><br/><br/><br/>■헨리 밀러의 <북회귀선>과 <남회귀선><br/><br/>오늘날 세계의 고전으로 알려진 헨리 밀러의 대표작 <북회귀선>(1934)은 미국에서는 출간되지 못하고 프랑스의 오벨리스크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는데, 미국이 금서로 지정하는 바람에 1960년대 초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헨리 밀러의 고전문학 작품을 출간한 유일한 도색 전문출판사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 유명한 그로버 출판사가 <북회귀선>을 출간했지만 음란도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964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야 드디어 금서에서 풀려났다. <br/><br/><br/><br/>밀러는 문학적 망명객이자 방랑객으로 파리에서 살면서 <북회귀선>을 썼다. 그는 파리에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으며 인간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소설 <북회귀선>이었다. 그에게 파리는 다음과 같은 곳이었다. “파리는 고뇌와 슬픔의 도시다. 그래도 나는 아직 절망하지 않고 있다. 나는 다만 재난과 유희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파리가 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광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알 것 같다. 나는 왜 사람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환상과 불가능을 파리에서 찾으려 하는지 알 것 같다. 파리에서는 모든 것의 경계가 소멸한다.”<br/><br/>파리에서 망명객과 유목민으로 살면서 밀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감과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민하고 성찰한다. <북회귀선>을 도색소설이라고 비난하는 근거인 여성 성기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도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남녀 간의 진정한 교류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은유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러에게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마저도 진정한 인간교류가 되지 못하는 희극적 행위일 뿐이었다. 밀러는 그러한 현상을 문명의 질병으로 보았다. ‘북회귀선’은 영어로 ‘Tropic of Cancer’인데,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를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암은 문명의 질병을 상징합니다. 암은 잘못 접어든 길의 종착지이며, 동시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br/><br/><br/><br/>헨리 밀러는 1891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43세가 되던 1934년에야 비로소 작가생활을 시작하다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소위 ‘길 잃은 세대’ 작가들이 유럽에서 돌아오기 시작했던 1920년대 말에야 홀로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에서 방랑하며 1930년대를 보냈다. 밀러의 두 대표작인 <북회귀선>과 <남회귀선>(1939)은 모두 1930년대에 쓰였는데, 그것들은 당시의 관심사였던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과는 무관한 개인의 자유와 청교도주의의 종말을 추구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다. 밀러는 동시대 작가들과는 달리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관습과 도덕과 윤리, 그리고 모든 정치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다. 밀러의 <북회귀선>의 등장은, 모든 미국작가들이 사회진보를 외치던 정치이데올로기 시기에 개인의 자유와 고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청교도주의적인 집단 윤리에 반발하며 1960년대 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시했다는 점에서 현대문학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다.<br/><br/>헨리 밀러는 파업과 데모, 그리고 마르크시즘이 미국인들의 주 관심사였으며, 모든 것이 정치이데올로기로 귀결되던 1930년대 경제공황 시대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고뇌를 자신의 소설에 담았던 특이한 작가였다. 그러나 밀러의 그러한 태도는 당시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데올로기와 경제적 분배가 문학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작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밀러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도 없었고 자신의 사적인 세계 외에는 타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청교도주의가 부과한 죄의식에서 벗어나 극도의 개인주의와 쾌락을 추구하게 될 미국인들의 모습을 헨리 밀러가 1930년대에 이미 예시해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밀러는 포와 호손과 멜빌이 묘사했던 어두운 청교도적 죄의식에 종말을 고하며, 자유주의의 도래를 선언한 새로운 시대의 기수였다고 볼 수 있다.<br/><br/>과연 밀러는 미국 중산층의 속물적 근성을 조롱했으며, 그들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청교도적 관습의 굴레를 비웃었던 진정한 자유주의 작가였다. 그는 1940년대가 되어서야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오래 떠나 있었던 미국을 돌아보기 위해 대륙 횡단여행을 하고 돌아온 밀러는 미국을 “<span class='quot0'>냉방된 쾌적한 악몽(an air-conditioned nightmare)</span>”이라고 불렀다.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사실 1930년대의 미국 사회를 보는 밀러의 시각도 그랬다. 밀러에게 있어서 1930년대의 정치이데올로기나 집단의식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벗어버려야만 하는 이념적 굴레일 뿐이었다. 밀러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정치이데올로기가 부재한 작품을 썼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문학이나 예술소설이 아니었다. 정치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밀러는 이념적 억압과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던 영원한 유목인이자 보헤미안이었을 뿐이다. <br/><br/> <시리즈 끝><br/><br/><김성곤 | 문학평론가·한국문학번역원장>

언론사: 경향신문-3-431.txt

제목: "이재용 구속, 우병우 특검 소환에 마음이 한결 가볍다"···16번째 촛불집회 시작  
날짜: 20170218  
기자: 이유진·김원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8165605001  
ID: 01100101.2017021816560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6번째 촛불집회가 열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본 집회 시작 전인 오후 3시부터 시민들로 붐볐다. 칼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특검 소환 조사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인지 한결 가벼워 보였다. <br/><br/>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김성준씨(44)는 “아홉살난 아들과 일곱살 딸을 데리고 매주 나오고 있다”며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이재용이 구속되고 우병우도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으니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일단 신나는 기분으로 나왔다”고 말했다.<br/><br/>전북 전주에서 올라 온 취업준비생 안주현씨(27)는 7주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아왔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번 촛불집회를 왔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왔다”며 “이제 이재용도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여전히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수사가 흐지부지될까봐 걱정이 들어 다시 광장을 찾았다”고 말했다.<br/><br/>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풍자도 이어졌다.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을 복싱용 미트에 새겨 복싱 글러브로 때릴 수 있게 만든 ‘하야 펀치2’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탱탱볼’에 최순실씨의 얼굴을 만화 캐릭터처럼 그려 새긴 ‘히트다 히트, 순실이 탱탱볼’도 인기였다. <br/><br/> <br/><br/>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시작했다. <br/><br/>본 집회의 첫 자유발언자로 나선 경기도 성남에서 온 60대 남성 이용우씨는 “<span class='quot0'>최근 목에 4㎝ 길이의 암이 발견됐지만 그래도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손주가, 또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시는 촛불을 들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본 집회는 공연과 시민들의 자유 발언, 시민사회관계자들의 발언으로 구성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본 집회가 끝나는 오후 7시30분에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나눠 행진을 할 예정이다.<br/><br/>앞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과 동아일보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를 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시민들은 “고영태가 주범이다”, “박영수 특검 구속하라”고 외치며 박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br/><br/><이유진·김원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2.txt

제목: [사설]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무죄 납득할 수 없다  
날짜: 2017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6212319002  
ID: 01100101.20170216212319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span class='quot0'>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 윤씨가 의원회관을 찾아가는 이동 경로와 의원실 내부에 대한 일부 진술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품 전달이 4년 전 일인 데다 수사 당시 윤씨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세한 부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br/><br/>윤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전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찾아왔을 때는 물론 검찰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씨는 정치자금법상 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냈다면 법적으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처벌을 감수하고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보긴 어렵다. <br/><br/>홍 지사의 측근들은 2015년 4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윤씨에게 “(홍 지사)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하는 등 회유·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구린 사실이 없다면 핵심 증인에게 접근해 홍 지사와 무관한 것으로 해달라거나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하자고 애원할 이유가 없다. 재판부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윤씨의 다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br/><br/>이번 재판부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1심을 뒤집고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중 이 전 총리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번엔 홍 지사에 대한 인터뷰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두고 같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달리 보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 “<span class='quot1'>무죄 선고를 작심하고 법리를 꿰맞춘 정무적 판결</span>”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의문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언론사: 경향신문-3-433.txt

제목: ‘느린 암’ 당뇨 수술법 어디까지 왔나…EBS1 ‘명의’  
날짜: 20170216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6193834002  
ID: 01100101.2017021619383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당뇨병은 당장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 당뇨를 ‘느린 암’이라 부르며 경계하는 이유다.<br/><br/>EBS 1TV <명의>는 ‘당뇨, 수술로 완치할 수 있나?’ 편을 방영한다. 당뇨의 증상, 예방법과 함께 최근 떠오르고 있는 당뇨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당뇨 18년차 송명희씨(47)는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다. 당뇨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변증은 당이 흐르는 피 때문에 망막이 망가져 시력이 감소하는 병이다. 이 병은 한국인 실명 원인 1위이기도 하다. 20대 초반의 김민정씨(가명)는 이미 12년간 당뇨로 고생했다. 어릴 때부터 과체중이었던 데다 가족력까지 더해져 이른 나이에 당뇨가 시작됐다. 김씨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된 상태다. 김씨는 위의 상부를 잘라내고 상부 소장을 우회해 하부 소장과 연결하는 위우회술을 검토한다. 일단 발병하면 잘 치료되지 않는 당뇨병의 예방과 지연 방법을 알아본다. 방송은 17일 오후 9시50분.<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4.txt

제목: 오이고추 먹고 40kg 감량? 종편 식생활 프로그램 속 부적절 내용 1편당 1.2회  
날짜: 20170216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6110817001  
ID: 01100101.20170216110817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span class='quot0'>말벌주를 일주일 먹은 뒤 혈압약을 안 먹고 있다</span>” “<span class='quot0'>공복에 오이고추를 먹어서 4개월에 40㎏를 감량했다</span>” 귀가 솔깃해지는 이런 말, 방송에 나왔다고 믿어도 될까.<br/><br/>종합편성채널 식생활 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나 틀린 내용 등 잘못됐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프로그램 1편당 평균 1.2회 방송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김순미 교수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2015년 5~9월 방송된 종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중 식생활과 관련된 3개 채널 8개 프로그램의 방송분 82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연구팀이 모니터링한 방송 프로그램 82편에서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한 정보가 모두 95건 발견됐다. 프로그램 1편당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평균 1.2회 포함된 셈이다.<br/><br/>가장 흔한 사례는 시청자가 식품을 약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된 것으로 전체 82편 중 24편(29.3%)에서 나타났다. 일반 체험자를 등장시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 식품을 먹고 회복됐다’는 내용을 방송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통제된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가 아닌 경험에 의한 정보제공은 ‘과학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자막처리를 한다고 해도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21편(25.6%)였다. 식품영양 비전문가가 출연해 잘못된 주장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과거 영양이 결핍된 시대에 보양식이라 할 수 있었던 육개장을 ‘노화ㆍ암 예방에 탁월한 음식’이라고 소개하거나, ‘간장에 채소가 더해진 음식인 장아찌는 건강에 으뜸인 식품’으로 언급한 것</span>”을 대표적인 내용 오류 사례로 꼽았다. 정보에 균형성이 결여된 사례는 20편(24.4%) 나타났다. 특히 해외 식재료가 국내 식재료보다 나은 것처럼 소개한 사례가 2편 발견됐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콩류인 렌틸콩의 영양성분을 곡류인 쌀, 그것도 도정한 백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쌀의 영양가가 취약한 것으로 비춰지게 하는 방송도 있었다</span>”고 분석했다.<br/><br/>그 밖에 “칼슘이 풍부한 전복이 시신경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 식품의 생리활성 기능을 과장한 경우가 16편(19.5%),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 건강 상태가 사망 직전”이라고 하는 등 방송 내용이나 자막 처리시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14편(17.1%)로 분석됐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5.txt

제목: ‘인간 유전자 편집’ 판도라 상자 열리나  
날짜: 20170215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5220521001  
ID: 01100101.2017021522052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미국 과학계, 중국 성장 위기감에 “허용을”…치료 목적 기준 놓고 ‘논란’<br/><br/>미국 국립과학원(NAS)과 국립의학원(NAM)이 만든 국제 자문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과학자들의 유전자 편집 연구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추적에 위기감을 느낀 결과다. 자문위는 대를 이어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연구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치료 목적으로 볼 거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편집해’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br/><br/>자문위원들은 다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심각한 유전성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는 데만 유전자 편집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헌팅턴병이나 프랑스·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유전성 빈혈인 베타지중해빈혈 등을 예로 들었다. <br/><br/>가위로 종이를 오리듯 유전자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유전자 편집기술인 ‘크리스퍼-카스9’ 등을 통하면 유전성 질병이 아닌 암이나 실명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br/><br/>뉴욕타임스는 자문위가 아직까지는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이 불법인 미국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정자나 난자, 배아 등 생식세포 유전자 변형 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스웨덴이나 중국 등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지난해 10월 중국 쓰촨대학 연구팀이 처음으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이용해 폐암 환자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br/><br/>생식세포 유전자 변형 연구를 금지하는 윤리규정 때문에 관련 연구 성과가 지지부진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미국 식약청(FDA)과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보고서 작성에 자금을 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위원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생명윤리학자와 과학자들이 포함돼 있다. <br/><br/>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유전자 조작 오류로 인한 부작용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전자 편집기술의 안정성은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은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동물 임상시험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전연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인간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6.txt

제목: [이인숙의 월드포커스]짝퉁 보드카 사건 그후  
날짜: 20170215  
기자: 국제부 이인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5211225002  
ID: 01100101.20170215211225002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지난달 24일 러시아 소비자단체인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에 따르면 러시아 성인 알콜 소비량은 2009년 15리터에서 2016년 10리터로 30% 가까이 뚝 떨어졌다. 여전히 국제보건기구(WHO)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음주대국’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다. 술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이 건강을 생각해 술을 줄인 것일까. <br/><br/>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믿기 어려운 음주사고가 있었다. 시베리아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주민 80명이 보드카 대신 알코올이 든 보습로션을 마셨다가 숨진 참사였다. 포장에는 주정에 쓰이는 에틸알코올이 60% 이상 들어 있다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는 사람에 치명적인 메틸알코올이 들어 있었다. 업자 10여명이 줄줄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이 덮친 공장에서는 ‘가짜 보드카’가 담긴 50만여병이 압수됐다. <br/><br/>주민들은 보드카마저 살 돈이 없어서 이런 대체 알코올을 마셨다고 한다. 보드카 1리터는 약 220루블 안팎. 약 4300원 정도지만 피해자들은 이것도 낼 수 없는 빈민층들이었다. 어떻게 ‘로션’을 마실 수 있는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러시아에서 ‘짝퉁 보드카’는 진짜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공공연하다. <br/><br/>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사람 1200~1500만이, 즉 10명 중 1명은 이 ‘짝퉁 보드카’를 마신다. RBC방송 조사에 따르면 이 대체 알코올은 전체 알콜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수요는 매년 20%씩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팔면 업자는 보드카 0.5리터 당 100루블씩 붙는 주류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품에는 의약품·화장품 용도로 써야 한다는 안내 문구만 적으면 되니 법적 규제와 사후 책임을 피해가기도 좋다. 주류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보건부의 관리를 받는다. 덕분에 향수용 알코올 판매는 2014년~2015년 900만 리터에서 3800만 리터로 늘어난 반면, 주류용 알코올은 13% 느는 데 그쳤다. 알코올이 70% 이상 들어간 화장품을 파는 자판기 광고에는 버젓이 “불경기에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br/><br/>결국 이르쿠츠크 사고는 음주 규제와 민생고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얘기다. 올해 처음 일어난 사고도 아니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사고 직후 급한 대로 알코올이 25% 이상 함유된 제품을 다음달까지 모두 판매 금지시켰다.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의 자판기 판매도 금지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못 팔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음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술 많이 마시라고 장려하는 꼴이 된다. 결국 손대야 할 핵심은 따로 있다. <br/><br/>러시아 주류 사업은 17세기부터 국가 독점이었다. 당시 성인남자의 3분의 1이 술집에 빚이 있었다고 한다. 표트르 대제는 술빚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국민을 군에서 25년 복무하는 조건으로 빼줬다. 술을 권하는 사회였다. 제정 러시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술을 금지시켰지만 그가 죽고 난 뒤 스탈린은 소련의 경제 부흥을 위해 금주령을 풀었다. 1970년대까지 주류에서 나오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됐다. 1955년에서 1979년 약 20년 사이에 러시아 1인 알코올 소비량은 두배로 늘어 15.2리터가 됐다. 당시 알코올 중독은 소련에서 성인질환 순위에서 심장병과 암 다음으로 3위였다. <br/><br/>미하일 고르바쵸프가 1985년 대대적으로 ‘알코올 중독과의 전쟁’을 벌였던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도자들은 모두 술에 관대했다. 1992년 주류 사업의 국가독점이 폐지되면서 주류 생산량은 훌쩍 늘었다. 푸틴은 러시아의 악명높은 음주문화를 비판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 국영 주류회사를 만들어 경영을 친구에게 맡겼다. 음주 규제를 명분으로 경쟁업체를 단속하면서 이 회사는 ‘합법적’ 보드카 시장의 45%를 장악했고 술값은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으로 이제 아예 화장품, 의약품에 쓰이는 알코올 제조산업도 규제를 위해 국가 독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에서 반체제 인사인 역사가 조레스 메드베데프는 보드카를 ‘대중을 위한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가짜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시름을 달랠까.<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7.txt

제목: [단독] 유아인 ‘골종양’ 투병···군 신체검사 보류 이유 밝혀져  
날짜: 20170215  
기자: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5185543001  
ID: 01100101.20170215185543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최근 군입대가 몇차례 보류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던 톱스타 유아인이 골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본지 취재결과 드러난 사실은 소문과 달랐다.<br/><br/>유아인의 골종양 발병설은 그가 다니던 강동구의 한 병원 주변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거듭된 취재 끝에 한 제보자는 “그가 골종양이 생겼다. 현재 발병 초기다”며 “이 같은 사실은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 첨부한 진단서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 골종양의 예후가 가볍지 않아 입대 보류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인의 주변 취재를 통해 유아인의 ‘골종양 발병’은 사실에 가까워졌다. <br/><br/><br/><br/><br/><br/>■ 골종양 발병원인은 촬영 중 부상?<br/><br/>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에 응했지만,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영화 촬영 도중 당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신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 2014년 영화 <베테랑>의 액션신 촬영중, <깡철이> 때의 부상이 더욱 악화됐다. 한 영화 관계자는 “<베테랑> 촬영 당시 유아인 곁에는 마사지사가 항상 붙어 있었다. 마사지 후 촬영에 임했고, 촬영 후 팔을 부들부들 떨어 ‘감기 걸렸니?’라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밝혔다. 영화 촬영중 사고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골종양도 함께 발견돼, 병행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br/>1차 등급보류를 받은 것은 지난 2015년 12월, 2차 보류는 2016년 5월이었다. 3차는 앞서 밝혔듯 지난해 12월이었고 4차 판정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병무청은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span class='quot0'>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며 판정을 보류했고,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span class='quot0'>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상완골두내 낭종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상완골두(上腕骨頭)는 위팔뼈의 위쪽 끝 부분을 말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무리가 없지만,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br/><br/>■ 골종양보다 악플이 고통<br/><br/>국립암센터 골연부종양클리닉 김준혁 정형외과 전문의는 취재 내용을 확인 한 후 “골종양이라 일컫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골낭종으로 보인다. 이중에도 동맥류성 낭종은 크게 자라나면 뼈를 부수는 등 심각한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질환의 진행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유아인의 소속사는 15일 기자의 ‘유아인의 골종양 발병’ 질문에 “배우의 개인 신상 문제라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소속사의 반응은 “아니다”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였다. 지난해 12월 3차 보류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와 상완골두내 낭종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유아인의 신체검사 등급은 재검 판정인 7급이다. 오는 3월 재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br/><br/>소속사는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역 입대를 염두에 두고 작품·광고 계약을 미뤘다.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을 한도로 정했다.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기피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아인과 작업했던 한 유명 배우 역시 ‘병역기피설’에 “유아인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군 입대는 그에게 사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단언했다.<br/><br/>유아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 한국나이로 32세다. 그는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의심하는 ‘악플’ 공격이다.<br/><br/><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38.txt

제목: 치료 까다로운 폐암과 췌장암, 면역암치료로 장기생존율 높여야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5121721001  
ID: 01100101.201702151217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무엇일까.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수년간 암 사망률 1위를 기록 중인 폐암은 최근 흡연인구 증가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위암, 대장암, 췌장암의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br/><br/>그 중에서도 폐암과 췌장암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시 이미 3~4기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폐암과 췌장암은 특히나 3~4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3~4기 발견 시 폐암 생존율은 5%, 췌장암은 10.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완치보다는 장기생존율을 높이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것.<br/><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초기증상 없이 몸속에서 자라나는 폐암과 췌장암은 수술과 치료의 예후도 좋지 않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른 암보다도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생존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에 더욱 힘써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이처럼 폐암은 초기발견이 쉽지않아 진단 시 대부분 3기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지만, 3기 이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5%밖에 되지 않는다. 또 전체 폐암 환자의 70~80%는 국소 및 원격전이가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가 까다로운 편이다.<br/><br/>췌장암도 복부 깊숙한 장기에 위치해 있어 수술이 어렵고 전이 및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바로 항암치료에 돌입하게 된다. <br/><br/>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공격적인 치료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환자의 면역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항암제가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구토, 탈모 등 항암부작용이 생겨나고 면역력 저하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된다.<br/><br/>최근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대안으로는 한방면역암치료법이 있다. 실제로 강남푸른숲한의원(구 하나통합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기존 항암치료과 한방 면역항암제를 병행한 양한방통합치료를 통해 항암치료의 부작용 및 내성을 완화시켜주고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br/><br/>이곳에서 치료에 사용 중인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는 옻나무 추출물로 법제한 한방 면역항암제로 자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처방 시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또한 옻나무 추출물이 신생혈관 생성 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항암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성 및 부작용을 상당부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이 한방면역치료제에 대한 암 환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는 국제 SCI급 논문에 등재돼 한방암치료를 통한 암세포 사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br/><br/>한편 강남푸른숲한의원은 지난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한 하나통합한의원이 상호를 변경한 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진행하는 자매병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중 제2암병원 가평푸른숲요양병원 오픈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39.txt

제목: 듀스 김성재 사후 22년…남겨진 가족의 삶  
날짜: 20170213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3200749001  
ID: 01100101.2017021320074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ㆍEBS1 ‘리얼극장-행복’<br/><br/>1995년 11월20일,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듀오 듀스의 김성재씨가 의문을 죽음을 맞이했다. 성공적인 솔로 컴백 무대를 마친 날 밤에 벌어진 일이었다. <br/><br/>남은 가족들에게 이후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EBS 1TV <리얼극장-행복>은 김씨의 어머니 육영애씨와 동생 김성욱씨의 이야기를 방영한다. 어머니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다. 늦게까지 오지 않던 아들을 만나러 숙소로 달려갔어야 했다고 자책하는 날이 이어졌다. 동생 성욱씨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다. 어머니의 고통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떠안아야 했고, 형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가수 활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뮤지컬 배우를 시작하며 자신감을 얻었으나 화재 사고를 당해 경력을 끝냈다. 결혼과 함께 안정을 찾았으나 사랑하는 아내는 7살 딸 아이를 남긴 채 지난해 12월 암으로 세상을 떴다. <br/><br/>각자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두 모자 간에는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다. 모자는 슬픔을 덜어내기 위해 1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떠난다. 14일 오후 10시45분 방송.<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0.txt

제목: 종양 보관으로 개인맞춤 암 면역치료 가능해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3122451001  
ID: 01100101.2017021312245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이 진행 상태이거나 재발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종양보관 서비스'가 최신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br/><br/>일반적으로 외과 수술 및 조직검사를 통해 절개된 환자의 종양과 복수는 즉시 폐기처리 되거나 환자의 동의 하에 소량이 연구목적으로 보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량의 종양에는 개인맞춤 암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개인맞춤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양의 생체 보관이 필요하다. <br/><br/>종양을 생체로 보관하게 되면 기존 표준치료 후 잔여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항암면역치료가 가능하다. 실제 종양 보관을 의뢰한 환자 중 50% 이상이 항암면역치료를 위해 개인의 종양을 사용하고 있다.<br/><br/>세계 최대 규모의 종양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Store My Tumor사의 아시아 파트너사 '벤투스'는 환자들의 종양과 복수를 FDA (미국 식약청), AABB(미국 혈액학회) 및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 및 승인을 받은 최첨단 조직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br/><br/>종양 보관을 통해 기존 표준치료인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등의 한계를 넘어 개인맞춤 항암면역치료를 진행, 특정 암 항원을 사용하여 환자의 자가면역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유독성과 부작용을 없앴다.<br/><br/>한편, 벤투스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아시아 전역에 종양 보관 및 자가종양 면역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설립된 아시아 센터로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의학을 제시하고 있다. <br/><br/>개인맞춤 항암치료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벤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41.txt

제목: 항암치료 부작용, 면역체계 활성화로 막는다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3115931001  
ID: 01100101.201702131159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런데 치료를 위해 투여된 항암제로 인해 환자들은 항암제 부작용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떠안게 된다.<br/><br/>환자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항암제 투여 후 처음에는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3~5일이 지나면 입맛을 잃기 시작해 몸에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입안에 구내염이 발생하고,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며 손발이 붓고 저리며 감각 이상 등을 유발하는 수족증후군이 찾아오기도 한다.<br/><br/>대개 이러한 증상들은 항암제 투여 첫날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환자의 몸 상태는 점점 약화되다 다음 번 항암제를 투여하는 20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체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항암치료가 거듭되다보면 건강하던 환자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며 체중도 줄어들고 지속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br/><br/>이에 전문가들은 항암면역치료와 같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과 전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항암면역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r/><br/>항암면역치료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고 사멸하게 해 암 발생을 막는 치료 방법이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면역치료를 병행한 임상사례에서도 암 재발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br/>암과 면역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염창환 병원의 염창환 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면역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치료</span>”라며 “<span class='quot0'>항암제 투여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br/><br/>항암면역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암세포가 42℃ 고온에 죽는다는 특성을 이용한 ‘고주파온열암치료’다.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국림암센터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또 고압산소치료 방사선치료로 인한 피부괴사, 염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을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데, 공기 중 산소가 40% 포함된 산소통에 환자가 들어가 1시간 정도 호흡하는 것이다.<br/><br/>둘째,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의 흡수를 차단하는 면역암치료법이 있다. 일종의 식이요법으로 메가비타민요법이 대표적이다.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는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면역암치료법은 비타민C가 암세포에 당분을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효과는 10% 대에 불과하지만 삶의 질을 호전(77%)시키고 면역기능 증진(71%), 생명 연장(62%), 증상호전(44%)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마지막으로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성분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암치료 중에는 환자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염창환 원장은 영양제 처방과 자닥신, 미슬토, 이뮨셀LC와 같은 면역주사로 효과를 유도한다. 영양제는 환자의 상태와 환자가 받고 있는 치료법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br/><br/>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로는 베타글루칸 1-3, 1-6, 유산균 등이 있으며, 미슬토자닥신은 암세포의 성장은 억제하고 면역반응, 면역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분이다. NK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주사,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해 배양하여 주사하는 이뮨셀LC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br/><br/>한편, 도움말을 전한 염창환 원장은 암&면역중점치료 병원인 염창환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국내외에서 면역암치료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체험한 전문가다. 염창환 병원은 고주파온열암 치료기인 BSD2000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병원으로, 고용량비타민C치료 역시 국내 최로 시행한 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응급임상에서 이뮨셀LC치료를 시작한 바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42.txt

제목: ‘저탄고지’는 이미 진행 중···청년은 너무 많이 먹고, 노년은 너무 적게 먹는 지방  
날짜: 20170212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2135257001  
ID: 01100101.201702121352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이 섭취하는 에너지 중 지방의 비율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의 25%를 지방섭취에서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우리 국민의 지방섭취 현황’에 따르면 지방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r/><br/>남자의 하루 섭취량은 1998년 45.3ｇ에서 2010년 54.5ｇ, 2015년 58.9ｇ으로 총 13.6ｇ 증가했고, 여자는 같은 기간 35.2ｇ에서 38.1ｇ, 43.0ｇ으로 7.8ｇ 증가했다.<br/><br/>2015년 기준으로 지방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29세였고, 그다음으로는 12∼18세였다. 19∼29세 남자는 하루 74.7ｇ, 여자는 57.1ｇ를 섭취하고, 12∼18세 남자는 72.9ｇ, 여자는 50.9ｇ을 먹었다. 반면 65세 이상 남자는 30.6ｇ, 여자는 21.3ｇ을 먹어 섭취량이 젊은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br/><br/>이러한 섭취량 변화는 지방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8년 17.9%였던 지방의 비율은 2005년 21.8%로 3.9%포인트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율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에서 25.4%로 나타나는 등 49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22∼25%의 분포를 보였고 65세 이상은 13.3%로 절반 수준이었다. 적정 비율은 성인에서 15∼25% 정도다.<br/><br/>지방에서 얻는 에너지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5세에서 78.6%로 가장 높았고, 6∼11세, 12∼18세가 60% 이상이었다. <br/><br/>19∼29세는 34.1%, 65세 이상은 28.3%로 낮았는데, 청년 중에서는 지방 적정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사람이 많았고, 노인은 지방을 너무 적게 먹는 경향이 있었다.<br/><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의 지방섭취량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 관련 질병의 발생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체온 보존과 장기 보호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단, 단위 중량 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아 비만 관리를 위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지방을 구성하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은 종류에 따라 심뇌혈관계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3.txt

제목: [책과 삶]‘시스템 의학’으로 꿈꾸는 질병 없는 세상  
날짜: 20170210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0191450001  
ID: 01100101.2017021019145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질병의 종식 <br/>ㆍ홍윤철 지음 |사이 | 376쪽 | 1만8000원<br/><br/><br/>질병 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질병 없는 세상은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절로 도래할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러나 질병은 원인을 안다고 해서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pan>”라며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질병을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질병의 종식>은 그 ‘시각’을 담은 책이다.<br/><br/>저자는 기본적으로 질병이란 오랫동안 수렵채집인으로 살아온 인간의 유전자가 문명화 이후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태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대부분은 과거 인류의 조상이 살던 수렵채집 시기의 생활환경에 적응된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는 현대의 생활환경에는 적응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현대의 생활환경은 과거, 특히 문명 전 수렵채집 시기의 생활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r/><br/><br/>오랫동안 인간을 절멸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공중위생 개선,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 등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새롭게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이 주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이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수렵채집인 시절에는 생존에 도움이 됐지만 현대인의 생활환경에서는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발생과 관련 있는 유전자 Calpain-10이 대표적이다. 이 유전자는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다. 먹을 것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낮았던 수렵채집 시기에는 아주 유용했지만, 음식 섭취량이 많은 현대인의 경우에는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Calpain-10의 기능만으로는 혈중 포도당을 충분히 처리할 수 없어 당뇨병 발생이 증가했다. <br/><br/>결국 질병의 원인은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인의 생활환경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생활환경 요인을 한두개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따라서 평균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는 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예방법과 치료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br/><br/><br/>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생활환경 부적응으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만연한 질병을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출현해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만성질환은 현재 세계 사망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심혈관질환,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만성질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한때 전염병이 그랬듯 만성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만성질환은 감소하는 대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아토피나 크론병과 같은 면역교란질환,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 후기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br/><br/>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 흥미롭다.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일자리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저자는 인공지능 의존도가 심화해 개별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질 경우 정신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연결 사회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위압감에 자존감을 상실해간다면 인류는 존재의 불안감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 (중략)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250년간의 변화가 만성질환의 대유행을 창출했듯이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는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고 있어서 존재의 불안감은 정신적 질환의 폭발적인 대유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br/><br/>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후기만성질환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전자 전체의 DNA 코드, 후성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이 충분히 발달해 유전자의 구조와 변이는 물론 그것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는 질병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환경과의 복합적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환자의 병력만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포괄적 건강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시스템 의학’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접근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개인 맞춤형 정보, 대규모 인구집단에 대한 장기적 추적 조사, 전 세계적인 의료정보 공유 등이 요구된다.<br/><br/>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질병을 정복하면 유토피아가 오는가. 저자는 유보적이다. “<span class='quot1'>왜냐하면 소득 불평등의 심화, 과학 기술의 불균형 발전, 의료 접근성의 차이 등이 유지되거나 가속화된다면 의료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질병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구집단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span>” 가정 생활, 출퇴근, 식사 패턴, 친구, 운동, 독서, 여행 등 질병 관리라는 명분으로 취합된 상세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br/>질병 정복의 욕망 이면에 자리 잡은 불사의 욕망 또한 성찰의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두뇌를 전자적으로 복제한 다음 기계장치에 업로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할 경우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저자는 “<span class='quot2'>수명이 있다는 것은 세대를 교체해 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보다 적합한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결국 영원한 생명은 자연선택을 위한 경쟁의 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생명의 발전은 정지되는 것</span>”이라고 말한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4.txt

제목: 위협적인 폐암, 양한방통합치료로 재발·전이 막아야  
날짜: 2017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10163213001  
ID: 01100101.201702101632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흔히 폐암은 남성들이 주로 걸리는 암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발병추세에 있어서 남녀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지만 여성들도 최근 담배를 기호식품처럼 많이 찾으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br/><br/>국내 암 사망률에 있어서 남녀 모두 폐암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이처럼 폐암은 남녀 모두에게 위협적인 암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물론,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br/><br/>폐암은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발병사실을 잘 인지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도 1~2기보다는 3~4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찾은 뒤에는 이미 암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폐암 치료가 힘든 이유는 초기발견이 어려워 치료에 제약이 많은 3~4기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수술이 가능한 1~2기 환자는 전체 폐암환자 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폐암3기 이상 환자로 치료에 제약이 많다</span>”고 말했다.<br/><br/>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항암제의 경우 암세포제거 효과는 뛰어나지만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면역력저하 및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항암부작용을 극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양한방통합치료가 주목받고 있다.<br/><br/>특히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은 한방 면역항암제인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를 이용해 효과적인 암치료를 선보이고 있어 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곳의 치료제인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는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박상채 박사가 긴 연구기간 끝에 옻나무추출물로 만든 천연 면역항암제다. 옻나무추출물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br/><br/>또한 자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천연 한방면역항암제로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처방 시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하다.<br/><br/>아울러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는 국제 유명학술지 SCI급 논문에 등재되며 항암효과가 의학적으로 규명되기도 했다. 또 실제 암 환자들에게 적용돼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 박상채 대표원장은 “이곳에서는 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심리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독프로그램과 마음프로그램, 웃음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암요양병원 선택 전 반드시 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치료법 및 치료제 등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br/><br/>한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에 이어 제2의 암병원으로 가평푸른숲요양병원이 오는 5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45.txt

제목: 살모넬라균으로 암 치료 기술 개발  
날짜: 20170209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9040109001  
ID: 01100101.201702090401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민정준·이준행 교수팀 개발<br/><br/>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하는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만들어 면역치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br/><br/>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항암 면역유발물질을 생산하는 무독성 살모넬라균을 설계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전남대 의대 민정준·이준행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미국과학진흥회가 발간하는 온라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9일자에 게재되고 온라인 커버스토리로 채택됐다고 밝혔다.<br/><br/>연구진은 생체에 거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살모넬라 균주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하고, 이 균주가 암조직에서 비브리오균 편모인 ‘플라젤린 B’라는 항암 면역보조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했다. 이 살모넬라 균주를 다양한 종류의 암이 이식된 생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일으켜 원발성 암뿐만 아니라 전이암에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살모넬라가 암에서 증식되는 동안 암조직에 면역세포들이 침윤하고, 플라젤린 B는 침윤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해 강한 독성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살모넬라는 암으로 군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플라젤린 B는 이 군대에 발포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6.txt

제목: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 조사 실시…학교오염지도도 제작  
날짜: 20170208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8154303001  
ID: 01100101.20170208154303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어린이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와 학교 주변 대기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br/><br/>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안(2017∼2020)’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피해 예방·관리 방안을 담은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처음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br/><br/>주요 과제를 보면 충남도는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는 동일한 환경에서 어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며 노출에 의한 손상도 크기 때문이다.성장 중 입은 손상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능적·구조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는 유해 환경 노출을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추진해 왔다.<br/><br/>이번 조사는 내년 1단계로 어린이 건강 영향 추적 조사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어린이 생활 주변 환경 및 체내 유해물질 측정·노출 평가 등을 실시한다. 2019∼2020년 2단계에는 체내 측정과 함께 장기 추적 기반을 구축한다.<br/><br/>충남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대기오염 수준 실태 조사 및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한다. 이 과제는 산업단지 지역이나 교통량 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기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오염도 지도를 제작하며, 중점 관리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br/><br/>충남도는 소음 피해 발생과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주변 극저주파 노출과 암 발생에 관한 역학 연구,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른 예방·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br/><br/>충남도는 또 유해중금속 노출 경로 조사 및 저감 방안, 환경·보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라돈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관리, 자연 발생 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 피해 예방·관리, 사회적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등도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br/><br/>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span class='quot0'>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대산단지 대기질, 폐석면광산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있는 게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은 환경보건정책 요구의 증가와 과학적 근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정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충남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7.txt

제목: 혹시 나도 유방암? 유방암 초기증상과 위험인자 바로 알기  
날짜: 20170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8113411002  
ID: 01100101.2017020811341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장 흔한 초기증상은 유방 내 멍울, 유방암 고위험군은 정기검진 필수<br/><br/><br/><br/>유방암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다. 유방암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에게 더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유방암으로 진단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br/><br/>실제로 통계청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자수는 2004년 9천215명에서 2014년 1만8천38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진단 받은 여성 암환자 10만4천174명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유방암이 17.6%로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유방암은 조기발견에 성공한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통계청 암 등록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유방암은 암 발생시기에 따른 5년 상대생존율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92%로, 모든 암의 평균 생존율인 70.3%보다 훨씬 높았다. <br/><br/>이처럼 유방암 완치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조기 발견 및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최근 주기적으로 자가검진과 정기 검진을 진행하는 여성들 역시 늘고 있다. 자가검진에서는 유방암 위험 증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방암 초기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통증 없이 만져지는 멍울이다. 유방암으로 인한 멍울은 단단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r/><br/>유방암이 더 진행되면 유방이나 유두에서 출혈이나 분비물이 관찰될 수 있으며,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되면 겨드랑이에서 혹과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또한 암이 진행됨에 따라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한다. <br/><br/>아산 유방 갑상선외과 미유클리닉외과 인승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자가검진에서 이 같은 유방암 위험 증상이 확인되면 반드시 유방외과 등을 찾아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또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40대 이상 여성이나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전했다. <br/><br/>유방암 검진 방법은 크게 X-ray를 이용하는 유방 촬영술과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는 유방 초음파 검사가 있다. 두 검사는 상호보완적으로, 검사 시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검사법을 선택하거나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검사를 모두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보다 정확한 유방암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방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 경향신문-3-448.txt

제목: 암 등 병든 세포만 찾아 신호 ‘MRI 램프’ 개발  
날짜: 20170207  
기자: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7010622001  
ID: 01100101.201702070106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기초과학연구원 성공…“영상진단 신개념 제시”<br/><br/>몸속에서 병든 세포만 골라 찾아낸 뒤 강한 자기공명영상(MRI) 신호를 보내는 ‘나노 MRI 램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6일 나노의학 천진우 단장(연세대 화학과 특훈교수) 연구팀이 자성물질의 근접도에 따라 MRI 신호 강도가 달라지는 자기 공명 튜너(마그네틱 레저넌스 튜닝, MRET)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해 ‘나노 MRI 램프’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br/><br/>‘나노 MRI 램프’는 자성나노입자, 상자성물질(paramagnetic material), 생체인자 인식 물질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구(球) 형태의 자성나노입자와 상자성물질을 생체인자 인식 물질이 연결하고 있는 형태로, 생체인자 인식 물질이 질병 인자 같은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MRET 현상에 따라 자성나노입자와 상자성물질 간 거리가 멀어지며 MRI 신호가 켜지는 구조다.<br/><br/>현재 상용화된 MRI 조영제는 MRI 신호가 켜진 상태로 몸 안으로 주입되어 주변 조직과 병든 조직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이와 달리 나노 MRI 램프는 특정 질병과 연관된 생체인자에만 반응한다. <br/><br/>천진우 단장은 “<span class='quot0'>기존 MRI 조영제는 밝은 대낮에 램프를 켜는 것이라면 나노 MRI 램프는 밤에 램프를 하나 켜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분자 수준에서 관찰, 진단하는 영상진단의 신개념을 제시했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 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온라인판에 7일 오전 1시에 게재됐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49.txt

제목: 광운대, 독일 연구소와 함께 플라즈마 연구의 새 장을 연다  
날짜: 2017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6180152001  
ID: 01100101.201702061801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저온플라즈마(INP) 연구소와 함께 '플라즈마 의과학센터(Applied Plasma Medicine Center, APMC)'를 연다.<br/><br/>플라즈마 바이오 과학은 우주의 기본물질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아토피,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차세대 건강복지에 의학적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br/><br/>한독(韓獨)공동국제연구소인 플라즈마 의과학센터(APMC)는 플라즈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의학, 생명공학 및 환경 신소재 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바이오 과학 및 의과학’이라는 새롭게 확장된 연구 목표를 설계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Global Research development Center, GRDC)에 독일라이프니츠 INP 연구소와 공동으로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의 설립을 제안하여 유치하게 되었다.<br/><br/>2월 6일 오후 3시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310호에서 열리는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개소식에는 광운대 천장호 총장, 장윤영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김기영삼일문화재단 이사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국장, Stephan Auer주한독일대사, Klaus Dieter Weltmann교수(독일 INP 연구소장), Kai Masur교수(독일 INP 부소장), Thomas von Woedke교수(독일 INP 부소장), 이재일 교수(한국물리학회장), 오영제교수(대한민국과학기술 총연합회장), 한전건교수(GRDC 협회회장)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br/><br/>광운대 플라즈마 의과학센터(APMC) 최은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플라즈마의과학센터를 통해 플라즈마의과학분야, 특히 플라즈마의료기기의 선도 개발,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그리고 표준화 구축 사업을 목표로하여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여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광운대학교와 독일라이프니츠 INP 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br/><br/>이번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를 유치한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PBRC: 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는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ACE : Advanced Center of excellence)에서 융합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SRC : Science Research Center)에 선정되었다.<br/><br/>국내 플라즈마바이오과학의 기반 구축 및 선도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센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10년간 100억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PBRC)와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의 책임교수인 최은하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국제플라즈마의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Plasma Medicine)가 플라즈마의과학분야 생애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쌓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2016 ICPM 플라즈마의학상(PMA)’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최 교수는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의 플라즈마-유도자외선광분해과정(Plasma-initiated UV Photolysis)을 통해 생체안에서 활성산소 및 질소가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는 향후 각종 피부 질환 및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메커니즘 연구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언론사: 경향신문-3-450.txt

제목: 간암 항암치료 부작용 최소화한 '면역항암제' 각광  
날짜: 2017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3143521001  
ID: 01100101.201702031435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늘어나는 간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1회 간암의 날’이 지난 2일 제정되었다. 간암의 조기검진과 적절한 치료법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암의 날이 제정된 것으로, 간암은 40~50대 국내 암 사망원인 1위인 것은 물론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 점차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br/><br/>‘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조차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증상을 느끼더라도 간경화나 만성 간염 환자들에게 발생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다. 이렇듯 간암이 상당부분 진행될 시 체중감소, 복수, 복부팽만감, 황달 등 증상이 동반되며, 이때 병원을 찾게 될 경우 상당수는 간암 3~4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가 사실상 힘들어진다.<br/><br/>이와 같이 초기발견에 실패한 대다수의 간암환자들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항암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연장하게 되는데, 항암제의 강한 독성으로 인한 이른바 ‘항암부작용’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와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암은 항암치료 효과가 가장 낮은 암에 속하기 때문에 항암제 내성과 항암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br/><br/>이에 따라 최근 한방 면역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한방 면역항암제를 병행한 양한방 병행치료를 통해 항암치료의 부작용 및 내성을 완화시켜주고 환자의 면역력 강화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br/><br/>이를 위한 대표적인 면역항암치료제로 한방 암 치료를 통한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입증돼 SCI급 논문에 등재된 바 있는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가 주목받고 있다.<br/><br/>이에 대해 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옻나무제재(치종단II-티버스터)는 항암효과가 나타나는 옻나무추출물로 만들어진 한방 면역항암제로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처방 시 항암유효 반응률을 최대 80% 수준까지 올려준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생혈관 생성 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간암 환자에게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한편,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하여 믿을 수 있는 암 진료 한방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하나통합한의원이 강남푸른숲한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작년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하는 자매병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는 제3병원 가평푸른숲한방병원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51.txt

제목: 단국대, 돌연변이 세포만 죽이는 새 암 유전자 치료법 개발  
날짜: 20170202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2175054001  
ID: 01100101.201702021750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단국대학교가 난치성과 내성암에 효과적인 새로운 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다.<br/><br/>단국대 생명융합학과 이성욱 교수팀은 주요 발암 유전자인 ‘돌연변이 KRAS 유전자’에서 돌연변이 부위만 인지해 사멸시키고, 항암 기능을 가진 유전자 발현을 유도해 항암 효능을 높인 ‘RNA 시환 효소’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RNA는 DNA와 함께 유전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핵산의 일종이다. <br/><br/>이 교수팀은 ‘RNA 시환 효소’가 돌연변이된 염기 부분만 인지하고 암 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난치성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돌연변이 KRAS 유전자를 보유한 인체 대장암과 췌장암 세포를 동물에 이식한 뒤 우리 팀이 개발한 ‘RNA 치환 효소’를 투입한 결과, 모든 암 조직이 효과적으로 죽었고 정상 KRAS를 보유한 세포와 조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전보다 효율적인 항암 치료가 가능해졌다</span>”고 말했다. 이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암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절할 수 있어 내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br/><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공식학술지인 ‘몰레큘러테라피’(Molecular Therapy) 2월호에 발표됐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2.txt

제목: 담양 명문요양병원, 국내유일의 미FDA승인 고주파온열암치료기 BSD-2000 도입  
날짜: 2017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2151259001  
ID: 01100101.2017020215125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남 담양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원장 안승렬)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4채널 BSD-2000(Deep Hyperthermia System)을 도입해 지역 내 암치료 요양병원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br/> <br/>명문요양병원에 따르면 10여년간의 다양한 임상연구 및 온열암 치료 검증을 거쳐 2011년 11월 미국 FDA(미국식품의약안정청) 승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지난 2014년 11월 KFDA 인가까지 완료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BSD-2000을 도입했음을 알렸다. ㈜아이비랩이 공급하는 BSD-2000은 국내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가운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다.<br/> <br/>고주파 온열치료는 40~44℃로 상승된 체온에 노출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열은 정상세포를 제외한 저산소증과 낮은 PH상태의 종양세포를 선별하여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통증감소에도 효과적이다.<br/> <br/>고주파 온열치료기로서는 최첨단 장비에 속하는 BSD-2000은 심부에 있는 종양치료부위의 온도 및 열 체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온도센서 및 안테나를 장착한 전용 어프리케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종양치료부위의 온도를 체크함으로 기존 고주파온열암치료기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을 낮추고, 실시간으로 심부의 온도를 확인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br/><br/>또한 고주파 전달방식이 심부에서 열을 직접 발생시키는 레이디에티브 안테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체 내부 깊은 부위의 고형암에 40-44℃의 고열을 전달할 수 있으며, 75-120MHz의 고주파(RF) 에너지를 단방향, 양방향, 4극방향에서 원하는 위치에 전달 수도 있다. 특히 SAR(전자파인체흡수율)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적합한 주파수와 에너지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치료할 수도 있으며 종양의 크기 및 위치, 특성에 따라 타겟을 설정하는 등 치료계획에 의한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br/> <br/>2011년 개원한 명문요양병원은 편백나무 숲과 풍욕장, 황토병실, 황토찜질방 등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 치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며, 요가와 명상, 강의 등 다양한 환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주파치료실 외에 도수치료, 마사지실 등도 구비되어 있고 친환경 식단으로 음식에도 신경 쓰는 상태다.<br/> <br/>안승열 원장은 “<span class='quot0'>금번 BSD-2000 도입으로 암환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고주파온열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더불어 안전하면서도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환우를 위한 방안들을 꾸준하게 고민하며 통합의학 기반의 환자중심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경향신문-3-453.txt

제목: 법원,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집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선고  
날짜: 20170202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2133610001  
ID: 01100101.2017020213361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r/><br/>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ㄱ씨(67)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ㄱ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ㄱ씨 부인(66·여)을 숨지게 하고 ㄱ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넉달전 층간소음 원인을 찾겠다며 ㄱ씨 부부 집에 올라가 집 안을 한차례 둘러봤다. <br/><br/>범행이 발생하기 1년 전 아들 내외와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ㄱ씨 부부는 김씨의 층간소음 주장에 식탁 다리 밑에 테니스공을 끼우는가 하면,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걸레질을 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br/><br/>그럼에도 ㄱ씨는 여전히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 몰래카메라를 구매한 뒤 ㄱ씨 부부 집 복도 천장에 설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 <br/><br/>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span class='quot0'>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span>”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br/><br/>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span class='quot1'>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pan>”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ㄱ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br/><br/>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4.txt

제목: 외환위기 극복·구조조정 지휘한 ‘지장’…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별세  
날짜: 20170201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1205400001  
ID: 01100101.20170201205400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ㆍ‘꾀주머니’ 경제전문가 평…2002년 재·보선서 당선 정계 입문 <br/>ㆍ80년대 신군부 ‘차출’엔 버티기…노무현 후보 경제 공약 주도<br/><br/><br/>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맡아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74세.<br/><br/>강 전 장관은 췌장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코리안 미러클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 보고회였다. 당시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진적 기업지배구조 확립,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도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맡았다.<br/><br/>194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강 전 장관은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일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교사로 일해 학비를 벌어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학입시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 당시 인기가 높은 서울대 화공과와 기계과를 지원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서울대 상대에 늦깎이로 입학한 뒤 196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br/><br/>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차관보를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차관과 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거쳤다. DJ 정부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정책기획수석을 맡았고 3개월 후 경제수석으로 옮겼다. 외환위기 극복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설득,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해 장관들이 소신껏 일을 하도록 도왔다. 1999년 이규성 전 장관에 이어 DJ 정부 두 번째 재경부 장관에 올랐다.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함께 재벌 개혁,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지휘했다.<br/><br/>2002년 8월8일 재·보선에서 고향인 군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주도했다. 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으며 2012년 3월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군산대 석좌교수,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으며 경제 원로로서 활동했다.<br/><br/>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는 새누리당에 입당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심각한 만큼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직접 사주는 형태로 돈을 풀자며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안해 주목받았다.<br/><br/>행정부·입법부를 두루 거치며 40여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한 그는 지장이란 평가를 받는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아이디어가 많은 꾀주머니로 불렸다.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이어서 1980년대 초 신군부가 경제기획원 고참 과장인 그를 차출하려 했으나 못 가겠다고 버틴 일화가 있다.<br/><br/>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1일 학계와 재계, 전·현직 관료,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찾아 애도를 표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혜원씨(71)와 아들 문선씨(43), 딸 보영씨(42)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 옥구읍 가족묘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5.txt

제목: DJ정부 경제사령탑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별세  
날짜: 20170201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201095927001  
ID: 01100101.20170201095927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1일 별세했다. 향년 74세.<br/><br/>강 전 장관은 최근 췌장암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DJ 정부 시절 정책 브레인으로 통한 경제관료로 IMF 외환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렸던 1999년 재경부 장관을 지내며 위기 극복을 이끌었다.<br/><br/>재경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거쳐 2002년 8월 8일 재보선에서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을 주도했다. 16대 재보선 당선에 이어 17∼18대 내리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br/><br/>2012년 3월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계 은퇴선언을 했다. 이후 군산대 석좌교수,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으며 경제 원로로서 활동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는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br/><br/>강 전 장관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 학비를 벌어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학입시에서 두번이나 실패했다. 당시 인기가 높은 서울대 화공과와 기계과를 지원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결국 서울대 상대에 늦깎이로 입학하고서 행정고시 합격을 통해 관가에 발을 내디뎠다.<br/><br/>그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시대 최고의 요직이라는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장을 4년이나 지냈다. 이어 차관보를 4년 가까이 지냈으며 노동부 차관과 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거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재경부 장관 등 요직에 중용됐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재벌 개혁,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이끌었다.<br/><br/>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공직사회에서 아이디어가 많은 꾀주머니로 통했다. 1980년대 초 신군부가 경제기획원 고참 과장인 그를 차출하려 했으나 못가겠다고 버틴 일화가 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다만 한 프로젝트 때문에 한달 정도 일시적으로 일한 게 전부다.<br/><br/>강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보고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것이 그가 참석했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그는 당시 “정치적 안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예전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br/><br/>강 전 장관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 옥구읍 가족묘.<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6.txt

제목: 개그맨의 도시 오사카, '웃음'의 암치료 효과 연구 개시  
날짜: 20170131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31095506001  
ID: 01100101.201701310955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웃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span>”<br/><br/>개그맨·코미디언·만담가 등 ‘웃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웃음의 암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br/><br/>오사카국제암센터는 개그맨·코미디언·만담가 등이 다수 소속돼 있는 연예기획사 요시모토(吉本)흥업 등과 연대해 웃음에 의한 면역력의 향상, 이런 현상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증연구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br/><br/>암센터는 외래환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요시모토흥업 등에 소속된 만담가 등을 매월 2차례 초청, 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암센터 측은 웃음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채취한 환자의 혈액과 끝나고 난 뒤에 채취한 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면역세포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br/><br/>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府) 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1'>웃음에 면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싶다</span>”고 밝힌 바 있다. <br/><br/>지금까지도 웃음이 갖고 있는 면역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된 적이 있지만, 4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br/><br/>일본웃음학회의 노보리 미키오(昇幹夫) 부회장(의사)은 “20년 정도 이전부터 웃음과 병에 관한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암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가지 병에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7.txt

제목: 노년기 건강 88하게 챙기는 8가지 건강수칙은?  
날짜: 201701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9230129001  
ID: 01100101.201701292301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국대병원은 29일 ‘노년기 건강을 챙기는 건강 수칙 8가지’를 발표했다.<br/><br/>2014년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의료이용 행태(입원과 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입원과 통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1위는 상해사고, 2위는 근골격계 질환, 3위는 암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이 암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단순 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손목,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이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막통증 증후군, 척추분리증, 족저근막염, 거북목증후군 등이다.<br/><br/>특히 노년층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와 뼈가 약해지는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br/><br/>재활의학과 이인식 교수는 “<span class='quot0'>근골격계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에 제한을 받아 여러 종류의 척추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span>”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2차 손상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평소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 8가지를 제시했다.<br/><br/>◀건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수칙 8가지<br/><br/>1. 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하자<br/><br/>2. 유산소 및 근력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br/><br/>3. 누워서는 눈 감고 잠만 자기 : TV 시청, 스마트폰 금지<br/><br/>4. 자세를 자주 변경하고 뒷짐지고 자주 걸어라<br/><br/>5. 좌식생활을 금지하고 의자생활을 하자<br/><br/>6. 조명은 침상에서 손 닿는 곳에 두자<br/><br/>7.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자<br/><br/>8. 집안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자<br/><br/>■대한노인병학회의 팔팔한 노년을 위한 8가지 신체활동 프로젝트<br/><br/>1. 하루 1번 집 밖에 나가기<br/><br/>2. 2잔 이상 물 마시기<br/><br/>3. 30분 이상 움직이기(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정도) <br/><br/>4. 4명 이상 어울려 운동하기-수다와 즐거움은 노인 우울증을 날린다<br/><br/>5. 500보 이상 한번에 걷기<br/><br/>6. 6가지 근력운동하기 (팔, 다리, 어깨, 배, 등, 옆구리)<br/><br/>7. 7가지 스트레칭하기 (목, 어깨, 허리, 옆구리, 허벅지 앞, 허벅지 뒤, 종아리)<br/><br/>8. 8번씩 헤아리기(시간은 8초씩)-모든 운동은 8초 이상 지속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8.txt

제목: 한국 국적 일본 변호사, 사상 첫 지방 변호사협회장 당선  
날짜: 20170124  
기자: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4211718001  
ID: 01100101.2017012421171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ㆍ첫 이민 사시 합격자 백승호씨…“혐오발언 해결 계기 됐으면”<br/><br/><br/><br/>한국 국적의 일본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회 회장에 뽑혔다. 외국적 변호사가 변호사회 회장에 오른 것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이다. <br/><br/>일본 효고현변호사회는 24일 백승호 변호사(55·사진)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효고현변호사회는 회원 910여명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 52개 변호사회 가운데 8번째로 크다.<br/><br/>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4년 건축사업에 실패한 부친을 따라 오키나와에 정착했다. 그에 앞서 여섯 살이던 1968년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상태였다. 일본어를 배워가며 어렵사리 오키나와에 있는 국립 류큐대학 법문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br/><br/>백 변호사는 “<span class='quot0'>미묘하게 어색한 일본어 탓인지 2차 논술시험에서 거듭해서 고배를 마셨다</span>”며 “<span class='quot0'>시험을 포기하려던 무렵 오키나와 출신인 도야마 나오유키(當山尙幸) 변호사의 격려와 조건 없는 경제적 도움을 받아 시험공부를 계속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서른을 목전에 둔 1990년 11월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때까지 합격한 외국적자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정착한 재일동포들이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소를 수료한 뒤 재일동포들이 많은 효고현 고베시에 정착해 동포들을 위해 힘써왔다. <br/><br/>백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외국적자인 내가 회장에 당선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창 논란인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좋겠다</span>”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2012~2014년에는 재일동포 변호사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인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br/><br/>일본 언론들도 이날 백 변호사 당선을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등 주요 신문은 첫 외국적 변호사회 회장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백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오는 4월1일 취임한다.<br/><br/><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59.txt

제목: [정동칼럼]‘기레기’를 위한 변명  
날짜: 20170124  
기자: 박원호 | 서울대 교수·정치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4205112002  
ID: 01100101.20170124205112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지인들 중 기자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기자들은 대체로 공손하지 않고, 얌전하던 사람도 기자가 되면 제법 대담해진다.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던 어느 후배는 기자가 된 후 갑자기 나를 ‘선배’ 혹은 ‘박 선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늦은 밤에도 느닷없이 전화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기자들은 민의(民意)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어도 기자증 하나 목에 걸고 정부부처를 출입하고, 고시에 합격한 적이 없어도 정책을 난도질하며, 그 흔한 학위 하나 없이도 세상 만물에 대해 오지랖이 넓음을 자랑할 수 있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뒤이은 ‘제4부’라 부르는 것도 아마 자신들이 지어낸 말일지 모른다.<br/><br/>그래서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다. 사실이야 어찌 됐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는 관료보다 거들먹거리고, 교수들보다 잘난 체하며, 검찰 못지않게 조직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는 응당 건방과 허세가 있어야 한다. ‘장관님’이라 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건 민정수석이건 레이저 눈총에 끄덕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이들이 건방과 허세 때문에 ‘기자’와 ‘쓰레기’를 조합한 ‘기레기’라는 말로 불리는 것은 아니다.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인터넷에 ‘기레기’라는 말이 처음 출현한 시점은 정확하게 2010년 10월이다.<br/><br/>흥미롭게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를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최상급인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2011년 하향 조정했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 몽고, 인도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다. 요컨대 ‘기레기’는 기자들에 대한 멸칭이 아니라 언론 자유의 후퇴에 대한 서술이며 한국 민주주의 쇠락에 대한 언술이기도 한 것이다.<br/><br/>기자들이 ‘기레기’가 되는 과정은 칼날 같아야 할 이들의 펜대가 사주와 광고주에 의해 무디어지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고, 나아가 미디어 환경이 취재와 보도의 질이 아니라 선정적 제목과 클릭 횟수만으로 평가받는 쪽으로 변화한 것과 궤를 같이했던 셈이다.<br/><br/>물론 이곳에서 기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들은 물어야 할 질문을 묻지 않았고, 물었더라도 슬며시 이빨에서 힘을 풀었으며, 발걸음은 현장에서 멀어졌다. 이들은 정부와 사주와 데스크에 공손했고 클릭 횟수와 답글에 연연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래 일관된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언론을 적극적인 통제와 장악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영방송 인사과정에 개입했고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했고,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는, 어떤 질문들에도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br/><br/>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탄핵 국면은 ‘기레기의 복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과 기자의 역할이 없었다면 정부의 철옹성과도 같던 자폐의 벽 너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넘겨다볼 수 있었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침묵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필요불가결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셈이다. 기자들이 실낱같이 파쇄된 의료기록, 혹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해 낸 것 또한 ‘기레기의 역설’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br/><br/>물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우리 언론과 기자들이 민주제적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매우 먼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느닷없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권력에 대한 취재와 보도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정치권력의 단순한 억압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벗어나기 힘든 자본과 센세이셔널리즘과 권력화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17년 오늘의 이 장면에서 나는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잠시 환영할 수밖에 없다.<br/><br/>그 이유는 아직도 언론이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권교체 여부를 막론하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강한 유인과 여러 제도적 수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제에 맞섰던 해직기자들이 복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MBC의 ‘막내 기자’들은 여전히 자괴의 ‘반성문’을 올리고 회사는 ‘경위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 전 MBC에서 해고된 이용마 기자는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않은 채, 이제는 암이라는 또 다른 병마와 홀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계속 ‘기레기’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연대의 손을 뻗어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br/><br/><박원호 | 서울대 교수·정치학>

언론사: 경향신문-3-460.txt

제목: 한방면역항암제 치료로 위암, 대장암의 ‘장기생존율’ 높인다  
날짜: 2017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4142222001  
ID: 01100101.201701241422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는 대장암과 위암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암은 늘 암 발생률 1~2위를 다투며 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br/><br/>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는 질환이기도 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의 생존율은 1기에 90%, 2기 70-85%, 3기 35-65%, 4기가 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위암 역시 생존율이 1기 80%, 2기 50%, 3기 30%, 4기 10% 정도다. 이는 암 발병사실을 늦게 인지할수록 생존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 발병 초기 발견은 이런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r/><br/>초기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암 발병 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경험하게 된다.<br/><br/>항암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것은 입증되었지만 강한 독성작용으로 인한 구토, 탈모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br/>또한 암이 3~4기 정도로 진행될수록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절제한다 해도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대장암은 절제술을 시행해도 20-50%는 재발하며, 두 암 모두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과 전신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br/><br/>초기 발견이 늦어질 경우 1차 암 치료 시 사용됐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문제다. 항암내성이란 암세포가 항암제에 무뎌져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환자마다 암세포가 달라 내성도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br/><br/>내성이 커지면서 환자는 점점 항암제의 약발이 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치료법 및 치료제의 사용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대장암이나 위암을 앓고 있다면 진단 즉시 생활습관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치료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br/><br/>이와 관련 최근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로 주목받는 한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br/><br/>특히 하나통합한의원에서 개발한 한방 면역항암제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돼 암세포 소멸 효과를 보는 등 암 재발 및 방지, 그리고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br/><br/>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 한방치료제 중 하나통합한의원에서 만든 '치종단ii-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 성분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방면역항암제로 암세포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해 호전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br/>특히 이 한방항암제는 화학항암요법과 병행처방 시 항암유효반응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통합한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단순히 한방의학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한방치료와 양방을 동시에 처방해 유효반응율을 높여 암을 치료하는 것이 한방항암치료의 핵심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티버스터는 국제 SCI급 논문을 통해 효과도 입증, 암환자 입장에서는 더욱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한편 21년간 암치료를 전문으로 해온 하나통합한의원은 강남푸른숲한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현재 하나통합한의원은 작년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자매병원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제3병원 가평푸른숲한방병원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61.txt

제목: 가족이 모이는 설, 건강·질병 가족력 점검해보세요  
날짜: 20170123  
기자: 박효순 선임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3093844001  
ID: 01100101.20170123093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23일 “<span class='quot0'>온 가족이 모이는 설은 건강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력을 알아보기에 좋은 기회</span>”라며 가족력 가계도를 그려보는 방법과 가족력 이야기 동영상을 공개했다.<br/><br/>가족들이 특정 질환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를 가족력이라고 한다. 대개 3대에 걸쳐 2명 이상 동일 질환에 노출될 경우 가족력에 해당한다. 비슷한 환경에서 유사한 생활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라 특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유전적인 측면도 작용한다.<br/><br/>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문가들은 ‘가족력 가계도’를 그리는 것을 추천한다. 서로가 가진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가족력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는 생활습관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br/><br/>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호 과장은 “<span class='quot1'>가족력은 유전질환과 달리 가족 중 누가 특정 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력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가족력 질환은 유전과 더불어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깊은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암의 경우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고혈압·고지혈증·심장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만큼 부모나 조부모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혹은 현재 가족 중 누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면 자신과 가족이 어떤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된다.<br/><br/>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력 가계도다. 가족력의 판단 기준이 3대에 걸쳐 특정 질환이 2명 이상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력 가계도 역시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가족 3대(조부모,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그린다.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자신 기준으로 3~4촌 친척 정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계와 모계는 동일한 범위로 그린다.<br/><br/>이렇게 완성된 가족력 가계도를 통해 현재 우리 집안의 가족력 질환이 무엇인지, 혹은 가족력이 의심되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력 가계도에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여부까지 작성하면 가족 내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br/><br/>가족력 가계도는 한 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매 명절마다 다시 확인하고 개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족들의 건강 변화는 물론 생활습관 변화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br/><br/>가족력 가계도를 통해 가족력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의 경우 1명만 해당되어도 가족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하는 시기보다 일찍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br/>건강 검진과 더불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은 물론 당뇨·고혈압·고지혈증·심혈관질환 모두 생활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짜게 먹거나 과음,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금연, 절주, 저염식 등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들이 함께 가족력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br/><br/>유태호 과장은 “<span class='quot1'>가족력 가계도를 통해 특정 질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질병이 발생할 시 가계도를 통해 그 사람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span class='quot2'>가족력 가계도는 가족력 질환 예방 목적은 물론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꼭 해보라</span>”고 권했다.<br/><br/>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에서는 이러한 가족력 가계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력 가계도에 대한 스토리영상을 제작, 병원 블로그,페북 등 SNS를 통해 환자들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가족력 가계도를 알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을 병원 내부는 물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게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br/><br/><박효순 선임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62.txt

제목: 대장암 재발 막는 ‘양한방통합치료’ 구축한 암요양병원 주목  
날짜: 2017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20152418001  
ID: 01100101.201701201524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는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확실한 것은 생활환경의 변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암 발병확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br/><br/>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3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은 현대사회에서 그 어떤 질병보다도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br/><br/>특히 암 중에서도 불규칙한 식습관, 과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에 쉽게 노출된 편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이 위암을 제치고 국내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br/><br/>한편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그 이유는 대장암의 경우 수술을 진행해도 약 20~50%의 확률로 재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br/><br/>재발된 대장암은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도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1차 암 치료 때 항암 내성을 겪은 환자라면 재발암 치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br/><br/>암요양전문병원 청평푸른숲한방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재발률이 높은 대장암은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완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재발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면역력 강화는 물론 효과적인 치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이와 관련 최근 한방 면역항암제는 암 세포소멸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새로운 암 치료제로 대두되는 추세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항암 내성으로 인해 암 치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주면서 항암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한방의학이 주목받고 있다.<br/><br/>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세포에 있어서 화학항암요법의 유효반응율은 30% 미만인 반면 양한방 통합치료 처방 시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양방과 함께 한방항암제를 함께 처방 받으면 그만큼 암 완치의 길이 빨라진다는 의미다.<br/><br/>자연스레 최근 암 환자들은 한방치료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집중치료기관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 요양 목적을 넘어 암을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암요양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 박상채 한의학박사(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요양병원 선택 시 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법 및 치료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경향신문-3-463.txt

제목: 앞으로 보험가입하고 나서 ‘시험본다?’  
날짜: 20170119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9120031001  
ID: 01100101.20170119120031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오는 10월부터 보험상품 신규 계약하고 나서 상품을 잘 이해했는지 전화로 ‘시험’을 보게 된다. <br/><br/>금융감독원은 보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해피콜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br/><br/>해피콜이란 보험회사가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이후 소비자가 본사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전화다. <br/><br/>지금까지 보험 가입 후 확인 전화를 하는 해피콜 서비스는 간단한 질문에 ‘예’, ‘아니다’로만 대답하면 됐다. 단순한 질문방식이라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알고 가입했는지 검증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br/><br/>앞으로는 단답형·선택형 질문을 혼합하기로 했다. 단합형 5개, 선택형 10개 등 총 15개 질문이 도입된다. <br/><br/>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가입후 1년이내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만 답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동안 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한다. <br/><br/>선택형의 경우 ‘보험료 중 펀드 투입금액은 ①보험료 전체 인가요? ②사업비 등 차감 후 일부인가요?’라는 질문에서도 대답을 골라야 한다. <br/><br/>또한 주로 민원 발생 대상이 되는 특약 상품에 대해서 해피콜 질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br/><br/>금감원은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r/><br/>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64.txt

제목: ‘밤이여, 나뉘어라’ 소설가 정미경 하늘로  
날짜: 20170118  
기자: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8231831001  
ID: 01100101.2017011823183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소설가 정미경씨가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57세. 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급성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폭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소설가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1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비소연인’을 발표하면서다. <br/><br/>치밀한 관찰력과 섬세한 문장을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파헤치는 작품을 썼던 고인은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주요 소재로 삼는 2000년대 문단의 새 경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br/>2002년 ‘장밋빛 인생’으로 오늘의 작가상,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나의 피투성이 연인> <발칸의 장미를 네게 주었네> <내 아들의 연인> <프랑스식 세탁소>와 장편소설 <장밋빛 인생>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등을 발표했다. <br/><br/>유족으로는 남편 김병종 서울대 동양화과 교수(64)와 아들 지훈·지용씨가 있다. 빈소는 한림대 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8시. (031)386-2345<br/><br/><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65.txt

제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주민 뇌출혈 4배 증가”  
날짜: 20170118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8201504002  
ID: 01100101.20170118201504002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ㆍ국회서 탈핵 심포지엄…“조산율도 일본 평균 크게 웃돌아”<br/><br/>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당 지역의 백내장·조산율·소아 갑상샘암 발병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등의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의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백내장 발생은 사고 이후 227%, 뇌출혈은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br/><br/>갑상샘암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소아 갑상샘암(의심 환자 포함)은 2013년 74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84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후세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처음(선행)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아이들 54명이 2년 후 추가(본격) 검사에서 암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다른 지역보다 20~50배 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어 과잉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할 수 없다.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사고 5~6년 이후 다수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br/><br/>일본 내 다른 지역의 경우 2001년부터 감소하는 자연 사산율도 후쿠시마 지역은 12.9% 증가했다. 심근경색 사망자 역시 전국적으로는 2009년 이후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2009년 1355명에서 2012년 1591명으로 늘었다. 2013년 급성백혈병 환자도 해당 지역에서 2010년 대비 213% 늘어 일본 전국 평균(142%)을 크게 웃돈다.<br/><br/>후세 원장은 “<span class='quot0'>원전 사고는 20~30년마다 한번씩, 원전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은 한국일 수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66.txt

제목: [세계 여성 지성과의 대화](2)레베카 솔닛 “분노는 지성과 짝 이뤄 의미있는 변화 만들 때 가치있다”  
날짜: 20170117  
기자: 캘리포니아 | 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7223043001  
ID: 01100101.20170117223043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ㆍ“희망은 낙관과 비관 사이에 존재…그래서 참여가 중요”<br/><br/><br/><br/>“<span class='quot0'>분노가 지성과 짝을 이뤄 의미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화는 그리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span>”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적폐를 치우고자 출구를 모색하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고 다시 그를 막아내려 희망을 모색하는 미국. 바다 건너 두 나라의 개인들은 다급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를 메우며 인터넷을 달구는 ‘썰전’이 치열하다. 대선 가도에 등장하는 후보에 따라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잔물결로 갈라지는 한국의 광장은 희망 속 불안에 갇혀 있고, 어둠 속 희망을 만들려는 미국의 개인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 지성의 계보에서 든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진보적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레베카 솔닛은 우리에게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을 부여잡자’고 조언한다. 솔닛은 행동하는 지성으로 환경과 인권 문제에서 오랜 시간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맨스플레인(mansplain·남성(man)과 설명(explain)의 합성어로, 남자들이 시시콜콜 가르치려 한다는 뜻)’이라는 단어로 21세기에도 만연한 젠더 불평등의 핵심을 명쾌하게 요약했다. 여러 저서를 통해 한국 페미니즘 담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민주주의를 방어하자(defend democracy)’는 슬로건을 들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그는 미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날에도 트럼프 당선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았다. 트럼프가 공식적인 대통령이 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샌프란시스코 그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마주 앉았을 때, 그가 물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냈죠?</span>” 내가 답했다. “<span class='quot0'>한 공간에 180만명이 뜨겁게 모여 차가운 이성으로 명령한다면요….</span>”<br/><br/><br/><br/>안희경: 한국의 광장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이뤄내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광장을 떠나지 못합니다.<br/><br/>레베카 솔닛: 아랍의 봄으로 6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모두 바람직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죠. 시리아도 이집트도. 독재자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많은 정권을 뒤엎은 과거를 갖고 있어요. 16년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달 새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이뤄진 일도 있어요.<br/><br/>안: 당신만의 승리의 경험이 있나요?<br/><br/>솔닛: 제가 55살인데요. 모든 가능한 방식에서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진행됐죠. 일단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는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제가 자랄 때, 여성의 권리란 별로 없었어요. 남편들이 아내의 몸을 소유했고, 강간은 드물게 고발됐죠. 어느 곳이나 여성이 권력을 갖는 위치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고, 모든 일터에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br/><br/>1991년 아니타 힐 사건(흑인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 연방대법관에 발탁된 클래런스 토머스의 청문회 장소에서 같은 흑인인 젊은 변호사 아니타 힐이 그의 성희롱을 고발했고, 이는 민권운동 진영에서도 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이란 단어가 생겼다)이 일으키는 모든 변화를 보았죠. 힐 이후 일상의 언어는 좀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기에 동성애 인권 운동의 시작부터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젠더에 대해 다시 정립하고 성적 취향, 결혼에 대한 모든 의미를 새로 조정하는 일 말이에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알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나오는 원유를 미국 텍사스주 정유 시설까지 잇는 송유관 건설 문제요. <br/><br/>안: 7년에 걸친 오랜 싸움이었죠.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공화당에 맞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권이 공식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활동가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저도 안도했습니다.<br/><br/>솔닛: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항의했습니다. 모두 함께 외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된다고요. 마침내 불허 결정이 났고, 이 사실은 게임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송유관들까지 취소됐고, 이젠 트럼프가 송유관을 건설한다 해도 우리는 그 규칙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br/><br/>안: 왜 트럼프에 대해서 저항합니까? 50% 가까운 개인들이 그를 원했고 당선을 환영하는데요.<br/><br/>솔닛: 힐러리 클린턴이 280만표 더 얻었어요. 더군다나 트럼프에 반대했을 수백만명의 투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색인종의 참여가 차단되었죠. 유권자 신분확인법 같은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투표를 못합니다. 처음에 힐러리에게 표를 던졌던 660만명이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득표수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면 공화당은 졌을 겁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여성혐오가 있었어요. 거대한 우파의 훼방에 미디어가 쫓아갔고, 사보타주를 했습니다. FBI와 러시아의 개입, 선거권자에 대한 억압이 트럼프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도록 했어요.<br/><br/>안: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군요. <br/><br/>솔닛: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어린이를 굶기고,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또한 유엔이 기후변화를 천명한 것을 실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라도 이런 재난을 막고 반대할 수 있어요. 이웃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나라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이 이웃 나라의 그 지도자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는 두 가지예요. 그가 추구하는 해악을 멈출 필요가 있는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글쎄요. 고려해볼 일입니다.<br/><br/>안: ‘힐러리는 차악’이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그러니 트럼프가 된 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br/><br/>솔닛: 이는 마치 감기가 에볼라보다는 차악이라는 말과 같군요. 에볼라도 싫지만 그냥 감기도 싫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판타지가 있어요.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표현이 현실을 설명해내는 데 유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단 한번도 정치적 선거에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선거는 끔찍하게도 더러운 비즈니스니까요. <br/><br/>하지만 힐러리에 대한 혐오에는 아주 많은 젠더적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힐러리의 공약은 버니 샌더스와 아주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았고, 힐러리의 남편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죠.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취했던 모든 정치적 선택, 이 두 남자가 한 것을 싸잡아 힐러리의 행보라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에게 같은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한 반응에다가 비이성적인 공격이었죠. 트럼프를 멈추기 위해 바삐 움직였어야 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힐러리를 비난했습니다. 힐러리에게 대항해 싸우는 일은 정신 나간 일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까요.<br/><br/>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노동계급의 분노는 이 시대에 고려해봐야 할 상황 아닌가요? 한국의 경우는 중류 노동계급이 되겠고요. 잠재된 분노를 살피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br/><br/>솔닛: 우리는 분노란 진정성을 갖춘 감정이기에 반드시 매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분노를 마치 신성한 것처럼 다룹니다. 하지만 분노는 얄팍합니다. 피상적이죠. 백인들은 아직도 다른 누구보다 잘나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잘나가지 못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경제를 들여다봐야 해요. 경제는 부유한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왔고, 점점 더 적은 돈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br/><br/>트럼프 내각의 17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30%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분배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은 평온한 중류층들입니다. 힐러리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그보다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이들이고요. ‘화’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죠. 의사가 병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의사들이 병균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죠. 암을 보고 분노하진 않잖아요. 낫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저는 의사들의 방식으로 진전되길 바랍니다. <br/><br/>분노가 지성과 짝을 이뤄 의미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화는 그리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마주한 수많은 화는 어리석었어요. 잘못된 정보에, 여성혐오와 분탕질이 있었죠. 이는 증오범죄와 많이 연결돼요. 유대인을 향한 시선, 유색인종에 대해, 여성, 무슬림 등등 그렇기에 분노에 대해 저는 아무런 존경이 없습니다. <br/><br/>안: 정치에 냉담했던 백인들이 ‘돌아온 유권자’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해석해야 할 현상 아닐까요?<br/><br/>솔닛: 백인 남성 가운데 60% 이상이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저는 생각하고 투표했다기보다는 ‘우리 백인 남자가 좀 더 낫지’ 해서 뽑았다고 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이 뭔가를 줘야 하나요? 왜 우리는 여성을 경멸하는 자에게 투표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나요? 칠레에서 피노체트에게 표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요? 이는 그저 우리가 당한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선거를 이긴 것뿐 아니라 일종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받아요. 게다가 샌더스도 이런 말을 하죠. 정치적인 정체성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정체성 정치는 인종적, 젠더적인 정의에 대응하는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는 유색인들한테 입 닥치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난 그게 괜찮지 않습니다.<br/><br/>안: 당신의 책, <어둠 속 희망>에서는 희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며 서로의 의견을 모으자고 합니다. <br/><br/>솔닛: 맞아요.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미국의 반은 여성이고, 3분의 1은 유색인입니다. 그럴 때 여성에게, 유색인에게 입 닥치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반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소리죠. 이는 그들보고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이슈에 대해 상관치 말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대해 말을 할 수 없게 돼요.<br/><br/><br/><br/>안: 요즘의 페미니즘은 젠더적인 접근에 있어 보다 문화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저는 보다 더 계급적인 문제를 통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의 문제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닐까 싶거든요.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됐을 때, 자연스레 약자의 삶은 보다 든든한 안전망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페미니즘을 언급할 때면 진보적 남성의 경우는 또 제게 공격적입니다.<br/><br/>솔닛: 이미 필요한 건 다 가졌는데, 그런다는 거죠?(서로 웃음)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보는 거죠. 문화적인 행위들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계급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젠더 문제보다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부자 여성도 폭행당하고 강간당하고 배제당하고 묵살당합니다.<br/><br/>안: 부유한 커뮤니티의 부자 백인 여성은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가난한 싱글맘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솔닛: 트럼프도 첫 번째 부인을 폭행했어요. 부자 여성도 같은 자원을 갖습니다. 부는 자동적인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최고의 부자 여성이라도 100% 안전장치를 갖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명한 하버드대 흑인 교수인 헨리 루이스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게 연행됐어요. 부자 동네 흑인 침입자로 취급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특권을 누리는 흑인도 하찮게 폭력적으로 다뤄졌어요. 왜냐하면 흑인이니까.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도 끔찍하게 취급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br/><br/>안: 오늘 당신의 조국에 대한 얘기는 꽤 암울한데요. 그럼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br/><br/>솔닛: 도자기 가게에 간 황소(Bull in a China Shop)란 표현 아세요? 영국 표현이에요. 섬세한 자기들이 가득한 곳에 황소를 풀어놓은 거죠.<br/><br/>안: 와장창 박살이 나겠네요.<br/><br/>솔닛: 어쩌면 트럼프는 이 나라가 맞이할 수 있었던 최악의 재앙일지 몰라요. 반면에 그가 3개월 안에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르고, 켄터키 프라이드를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관 부인의 몸을 움켜쥐다 망신당해 사퇴할지도요. 탄핵받을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으니까요. 이는 헌법적 가치 아래 위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면, 또 우리에겐 힘이 없다고 수긍하며 모든 것은 나빠질 대로 나빠질 거라고 상정한다면 이는 모든 것을 정말 가능한 최악으로 만드는 데 협력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게 있어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희망은 이 둘 사이에 존재해요. 희망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수긍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여가 좌우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요.<br/><br/>안: 대세의 흐름 속에서 희망은 일어났다 굽이쳤다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희망을 일굴까요?<br/><br/>솔닛: 제가 최근 <어둠 속의 희망> 개정판 서문에 인용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읽어줄게요. “망각은 절망을 생산한다. 하지만 그 시간에 기억은 희망을 생산하고 있다.” 절망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스토리를 관찰하고, 비폭력적인 사회변화가 일어났던 방식을 이해하고자 배워나간다면, 희망은 자라납니다. 희망은 위험해요. 위태롭죠. 사랑과 같습니다. 로맨스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죠. 아플까봐 싫어해요. 사랑도 일종의 희망이에요. 그가 날 사랑할 것이다. 내게 돌아온다. 우리는 연결되어 머물거야. 그러면서도 늘 위태위태하죠.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희망 또한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 없는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그곳엔 희망의 위기가 있습니다. 희망의 위험은 한번 보듬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br/>안: 제가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을 인터뷰했을 때 역사의 진전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밀고 나가는 힘은 결국 나와 우리 주변의 개인이 작동하는 마음속에서 온다고 여겼습니다. 더불어 살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세상은 발전할 거라고요. 하지만, 바우만은 이렇게 답하더군요. 젊어서 진보는 곧은 막대기처럼 똑바로 나아간다 여겼는데, 인생의 만년이 되니 진보는 추의 운동처럼 진행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순간, 절망했습니다. 이 고단한 반복을 계속해나가야 하는가라고요. 지금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우리들 또한 집으로 돌아가 고단함을 누일 안주 없이 계속 또 계속 서성여야 하는가 싶습니다.<br/><br/>솔닛: 우리에게는 ‘여성의 권리’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가정폭력이란 개념도 없었고 거리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이 벌어진다는 인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암울한 좌절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진자의 운동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새로운 지점을 지나갑니다.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 가면 높이 매달린 추가 이 운동을 보여줘요. 지구의 움직임이 회전하게 만들죠. 페미니즘은 그 추를 밀며 자리를 옮겨가고 있어요. 이는 한번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함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사회 진입이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br/><br/>안: 그래요. 추의 운동에 대해 듣고선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어온 생각이 주춤하며 기운이 빠졌지만, 곧 억압의 관성을 흡수하는 새로운 행동 속에서 궤도는 변하며 나선형의 방향을 갖겠구나 생각을 다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비폭력이야말로 관성을 흡수하는 위대한 방식이었구나 되새겼고요. 바우만은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길 당부했고, 이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들이 그 회전을 만들어간다는 거죠?<br/><br/>솔닛: 네. 우리가 역사를 옮깁니다.<br/><br/>안: 저는 개인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br/><br/>솔닛: 그리고 집단의 힘도 있죠. 함께하는 힘요.<br/><br/>안: 어떻게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br/><br/>솔닛: 사람들은 ‘아큐파이(Occupy) 운동’(2011년 9월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리고서도 엄청난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경영자들에게 분노해 뉴욕에서 일어난 시위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당시의 구호였다)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어해요. 첫째날, 둘째날 그리고 두 달 후, 경찰이 저항자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뉴욕 주코티 공원은 그렇게 비워졌죠. 하지만 그 순간 아큐파이는 세상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대단한 행동이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채, 건강보험, 주택담보대출 등 파멸을 부르는 곳곳을 바라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가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어제였어요. 아직 샌프란시스코 아큐파이 모임이 매주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2~3년 지난 다음 잊고 말았는데, 그들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임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미셸 푸코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른다(You know what you do but you don’t know what you do does).” 의미는 이래요. 당신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 일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해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도끼 살인마가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행동의 진행은 우리 너머로 나아갑니다. 마틴 루서 킹은 간디로부터 기술을 받아왔어요. 그 기술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닿았죠. 다시 아랍의 봄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사용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죠.<br/><br/>안: 지금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키워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이전 세대 누군가 알지 못하고 했던 용기에서 터져나온 씨앗일 수 있듯이오.<br/><br/><br/><br/>레베카 솔닛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의견이 분분한 소재에 대해 강단 있게 말했다. 젠더에 대해, 정치에 대해, 그가 속한 생태계 속 힘의 밸런스를 흔들 내용이다. 불편함이 일어날수록 하나의 사안은 여러 빛깔을 뿜어낸다. 이는 솔닛이 해온 시도와도 맞닿는다. 그는 더 깊은 논쟁, 더 복잡한 이해, 더 역사적인 인식을 위한 도구를 주고자 시도해왔다. 회색 빛깔 안에 있는 세상을 보도록, 또는 검정과 흰색 너머 온갖 색을 다 보여주고자. 흑백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br/><br/><br/><br/><br/>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은 누구?<br/><br/>정치·사회적 이슈에 발언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해온 진보적 저널리스트이자 문화비평가. 196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캘리포니아 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인권운동, 기후변화 문제, 반전·반핵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걷기의 역사> <어둠 속의 희망> <이 폐허를 응시하라>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멀고도 가까운> 등이 있다. <그림자의 강>으로 전미도서비평가상, 래넌문학상, 마크린턴역사상 등을 받았다. 2010년 미국의 대안잡지 ‘유튼리더’가 꼽은 ‘당신의 세계를 바꿀 25인의 사상가’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br/><br/><br/><br/> ■안희경은<br/><br/>재미 저널리스트. 불교방송 PD 출신으로 2002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서구의 문명사적 성찰과 대안 모색을 소개하는 글을 써왔다. 윌리엄 켄트리지 등을 인터뷰한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2014), 노엄 촘스키 등 세계 석학 7인과의 대담집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2013), 재레드 다이아몬드 등 세계 지성 11명과의 대담을 엮은 <문명, 그 길을 묻다>(2015)를 출간했다.<br/><br/><샌프란시스코 | 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

언론사: 경향신문-3-467.txt

제목: 세종 신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인공암벽장 설치  
날짜: 20170116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6153828001  
ID: 01100101.20170116153828001  
카테고리: 지역>강원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인공암벽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br/><br/>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이다.<br/><br/>행복청은 현재 설계 중인 다정동(2―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세종시 신도심 최초로 건축면적 130㎡, 2개 층 규모의 실내 인공암벽장과 220㎡ 규모의 스쿼시장을 설치할 계획이다.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배드민턴·탁구·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에어로빅장 등을 갖추고 있다.<br/><br/>행복청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스피닝·필라테스·요가 등 소수 동호인을 위한 취미 활동 공간도 설치할 방침이다.<br/><br/>세종시 신도시에는 도시 완공시점인 2030년까지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br/><br/>현재 7개 준공됐고, 7개가 건설 중이다.<br/><br/>이충재 행복청장은 “<span class='quot0'>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취미·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동호회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건립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68.txt

제목: 고주파·고열 이용한 ‘온열암치료’ 주목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6122638001  
ID: 01100101.201701161226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세기 전부터 그리스, 이집트 등 의학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암을 치료하는데 열을 이용하였다. 인도 역시 기원전 3000년 전에 암 치료 목적으로 열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열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고증된 바 있다.<br/><br/>이에 고주파와 고열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 고주파 온열암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암세포가 열에 강하지 않은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4의 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br/><br/>이렇듯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는 특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의학솔루션이다. 정상세포는 44°C가 넘어야 죽는 반면, 암세포는 42°C만 되면 죽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에 착안한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암세포에 온도를 42°C까지 올려서 죽이는 치료법으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게 개인별로 요구되는 열의 양과 온도를 조절하는 맞춤 치료법인 것.<br/><br/>이러한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단독요법보다는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를 병행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더불어 암 치료의 일반적 부작용인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과 소화 장애, 탈모, 팔과 다리 저림 등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하지만 전극을 부착한 피부 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피부 아래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에는 약간의 화상, 상처,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치료 후에는 수 시간 뒤에 열이 나거나 혈액순환이 약해질 수 있어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경우에 따라 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전문 의료진의 각 환자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br/><br/><br/><br/>암 치료 전문병원 염창환병원의 염창환 박사는 “<span class='quot0'>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단독요법보다는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높은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근거 없는 대체의학에 눈 돌리기보다는 검증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3-469.txt

제목: 발생율 높은 위암·대장암…장기생존율 높이려면 재발·전이 방지해야  
날짜: 2017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3154736001  
ID: 01100101.201701131547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암 발생률에서 항상 수위를 다투는 암은 대장암과 위암이다. 특히 이 두 암은 암등록사업이 시작된 1999년 이전부터 꾸준히 국내 남성 암발병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이라면 특히 위와 장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br/>눈길을 끄는 점은 위암이 항상 대장암보다 근소한 차이로 발생률에서 앞서 있었지만 최근 이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이 위암을 제치고 남성 암발생률 1위에 올라섰다. <br/><br/>의학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경제 및 생활 수준이 선진국화 되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된 측면,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게되는 문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span>"라고 설명했다. <br/><br/>암이 무서운 이유는 질환 자체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한 완치가 쉽지 않아 평생 암을 달고 살아가는 환자들도 많다. 여기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암의 무서운 점이다. <br/><br/>특히 대장암과 위암은 재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위암 환자의 40~60% 정도는 재발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장암은 근치적인 절제술을 시행했다 해도 20~50%에서 범위 내에서 재발한다.<br/><br/>또한 대장암과 위암은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국소 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사례가 많아 보다 광범위한 재발이 진행된다. 다른 장기 및 전신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아 재발암은 치료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완치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br/><br/>1차 암 치료 시 사용됐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문제다. 항암내성이란 암세포가 항암제에 무뎌져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환자마다 암세포가 달라 내성도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br/><br/>이렇게 약발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치료법 및 치료제의 사용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대장암이나 위암을 앓고 있다면 진단 즉시 생활습관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치료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br/><br/>항암제 내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즘 각광받는 치료법으로는 한방항암치료가 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 한방치료제 중 하나통합한의원에서 만든 '치종단II-티버스터'는 화학항암요법과 병행처방 시 항암유효반응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티버스터의 경우 국제 sci급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br/><br/>한편 21년간 암치료를 전문으로 해온 하나통합한의원은 강남푸른숲한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현재 하나통합한의원은 작년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자매병원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제3병원 가평푸른숲한방병원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3-470.txt

제목: [연말정산 문답]의료비 조회 안될 땐 ‘신고센터’ 클릭하세요  
날짜: 20170112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2172321001  
ID: 01100101.20170112172321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ㆍ연말정산 Q & A <br/>ㆍ교복·안경비 영수증 따로 챙기고 <br/>ㆍ온라인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br/><br/><br/>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여전히 따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br/><br/>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br/><br/>A: 신고서 작성 전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15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한 뒤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등이 안내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8일부터 별도로 홈택스에 개통된다. 온라인 간편제출 기능이 있어 연말정산 서류를 바로 회사에 보낼 수 있게 됐다.<br/><br/>Q: 올해 새로 바뀐 점은?<br/><br/>A: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br/><br/><br/>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도 있나?<br/><br/>A: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는다.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등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이들 항목은 영수증 자료 제출이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br/><br/>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br/><br/>A: 15~17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동네 의원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어 20일 이후 조회 안되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br/><br/>Q: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br/><br/>A: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 역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br/><br/>Q: 아이가 성년이 되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볼 수 없는데, 이유는?<br/><br/>A: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신분증을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직접 방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br/><br/>Q: 부양하는 부모님이 떨어져 살고 주민등록등본에도 없을 경우 공제 관련 자료는 어떻게 보나?<br/><br/>A: 일단 부모님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br/><br/>Q: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br/><br/>A: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이 대표적이다.<br/><br/>Q: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br/><br/>A: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세금을 낸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 등은 가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br/><br/>Q: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한 뒤 취소는 가능한가?<br/><br/>A: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메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에서 가능하다. 다만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하며 삭제 신청을 한 뒤 취소는 불가능하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1.txt

제목: [미래의 눈]수명연장, 모두의 유토피아는 아니다  
날짜: 20170111  
기자: 김보영 SF작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1212944001  
ID: 01100101.201701112129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엄마가 암이시라고?”<br/><br/>교무실에 조퇴증을 끊으러 온 민주의 말에 담임인 영희는 깜짝 놀랐다. 근래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병명이었다.<br/><br/>“정말 암이라니? 어쩌다가……. 어머니 검진칩도 안 심으셨니? 목 뒤에 말이야. 아무 내과나 가면 심어주는데.”<br/><br/>영희는 목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단백질로 만든 나노미터 단위의 칩이라 만져지지는 않았지만.<br/><br/>민주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가, 영희는 잠깐 고민했다. 검진칩 시술은 싼 편이지만 그 돈도 없는 집은 없으니까. 칩 시술은 무상제공이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요새 국회가 싸우느라 바빠 아직 계류 중이다.<br/><br/>“<span class='quot0'>엄마가 그거 심으면 보험 비용이 오른다고…….</span>”<br/><br/>영희는 입을 딱 벌렸다.<br/><br/>“<span class='quot0'>아니, 무슨 보험 무섭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span>”<br/><br/>“<span class='quot0'>해킹으로 개인정보 빼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span>”<br/><br/>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검진칩이 보급되면서 ‘이대로 가면 의료업계는 망한다’고 믿은 의료계와 제약업체의 언론플레이가 한때 대단했다. 보험회사가 칩에 기록된 모든 초기 질병에 추가금을 매긴다는 설에서부터,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범죄가 있다든가, 칩에 전파를 전송해 몸을 조종할 수 있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면 꼭 칩이 필요하겠나.<br/><br/>“다 거짓말이야. 집안 어른 누구한테든 말씀드려서 가족이 모두 검진칩 심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알겠니? 그리고 요새는 약도 시술도 다 좋아졌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br/><br/>성긴 구조의 암세포 혈관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노입자 치료법이 올해 도입되었다. 몸 전체에 폭격을 가했던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골라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이다.<br/><br/>“예방이 최선의 치료야.”<br/><br/>2025년, 의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암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치료법이 아니라 검진기술로 사라지고 있다. 2년에 한 번 하던 건강검진제도도 작년에 중단되었다. 검진칩이 이제 2년이 아니라 초 단위로 몸을 검진하기 때문이다. 건강염려증이 유행하는 부작용이 좀 있을 뿐, 암처럼 초기진단으로 잡아낼 수 있는 병은 기존 환자를 제외하면 사라지다시피 했다.<br/><br/>칩을 심지 않아도 동네 보건소나 마을회관에 비치된 혈액분석기에 피 한 방울만 넣으면 웬만한 질병을 간단히 검진할 수 있다. 이제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수다를 떨면서, 학생들은 학교 양호실에서, 직장인들은 휴게실에서 심심풀이 삼아 건강검진을 한다.<br/><br/>낙관적인 사람들은 벌써부터 인류가 불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설레발이 요란스럽다. 물론 기본적인 노화와 불의의 사고, 알려지지 않은 병과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다 해도.<br/><br/>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존엄한 죽음의 문제다. 벌써 세계 국가의 4분의 1은 안락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도 법안이 발의되었다. 노인의 재사회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사람이 150~200년을 살게 되었는데, 10년만 넘겨도 쫓아갈 수 없는 시대에 100년 전에 받은 교육을 어디에 써먹겠는가? 최근 학계에서는 의무교육이 어린 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년에 한번씩 새로 학교에 들어가 의무교육을 받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br/><br/>‘그러면 좋겠어. 학교가 두 배로 늘고, 선생이 두 배로 필요하면 나한테도 좋은 일일 테니까.’<br/><br/>생각난 김에 영희는 스마트폰을 켜 몸을 점검했다. 저번 달에는 가슴에 난 좁쌀만 한 종양을 처리했고, 간과 대장 기능 강화를 위한 주사도 맞았다. 검진목록은 오십 개쯤 되었다. 상태 바가 주황색이 된 것을 집어내다보니 다섯 개쯤 된다. 빨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br/><br/>꼭 게임 스테이터스 창 같아. 영희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br/><br/>어째 옛날보다 병원을 더 다니는 것 같아. 영희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그냥 주말에 잘 먹고 쉬면서 해결했던 것 같은데.<br/><br/>뭐,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지.<br/><br/>--------------------------------------------------------------------------------------<br/><br/>하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나는 소설을 쓸 때 가능한 한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하나 이상을 바꿔 넣지 않는 편이다.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수가 둘 이상이 되면 그 교집합을 다 따지기 어려워진다. 물론 별 생각 없이 대충 멋대로 세상을 만들 때도 있지만.<br/><br/>예전에는 미래예측 가능성을 9, 예측 불가능성을 1로 보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예측 가능성을 1, 불가능성을 9로 본다고 한다. 미래가 어디로 튈지 학자도 모르고 소설가도 모른다.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고 단지 변하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유연한 대처요, 이에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것은 또한 유연한 교육일 것이다.<br/><br/>위 에피소드에서는 몸에 심는 검진칩이 대중화된 후 사회가 적당히 그에 대처한 시대를 그렸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수명 연장의 유토피아는 얼마든지 디스토피아로 바뀔 수 있다. 검진칩이 대중에 무상제공되는 대신 비싸게 팔린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수명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었는데 교육, 결혼, 직업 환경과 제도가 지금과 그대로라면, 사회는 50줄 이후 직장도 수입도 없고 재사회화도 못한 채 더 백년쯤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수백만의 불행하고 화난 노인들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부양하느라 불행하고 화난 젊은이들과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모는 덤으로. 이미 우리는 실제로 그 디스토피아 언저리에 있다.<br/><br/>세상은 이제 백년, 십년 단위가 아니라 수년 단위로 변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나라가 몇 년 안에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br/><br/><김보영 SF작가>

언론사: 경향신문-3-472.txt

제목: 전북 사립대에서 또 사발식 강요 주장 나와 파문  
날짜: 20170111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1083900001  
ID: 01100101.20170111083900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술을 그릇에 가득 담아 마시는 이른바 ‘사발식’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학교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br/><br/>11일 이 대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ㄱ학과 재학생이라는 작성자는 “즐거운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왔는데 병장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암 걸려 죽을 것 같다”고 썼다. <br/><br/>그는 “35만원 가량의 학생회비가 있는데 형식상 자율적일뿐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돈을 안낸 분이 있으면 행사진행이 불가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치를 준다“고 주장했다.<br/><br/>또 “학교행사 중 ‘답사’라는 것이 있는데 답사를 가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며 “왜 뛰냐고 물어보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고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입장료가 없는 곳도 무조건 뛰어야한다”고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br/><br/>이 작성자는 “학교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예비역들과 함께 사발식 같은 걸 하고 학회장에게 경례를 해야한다”며 “일명 ‘똥군기’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br/><br/>글을 접한 재학생들도 격앙하며 동조했다. 한 학생은 댓글을 통해 “사실이다. ‘일동 학회장께 경례’라고 하면 거수경례‘해야 한다. 소주와 막걸리 맥주 물 음료수 등을 섞어 예비역들이 사발식이라고 하며 다 나눠마신다”고 설명했다.<br/><br/>또 다른 학생은 “내 친구는 학생회를 내고 밥값도 없어 며칠 동안 굶었다”며 “또 다른 내 친구는 학생회비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선배 3~4명에게 꾸중을 듣고 학생회비를 돌려 받았지만 약 7만원 정도가 빠진 금액을 받았다”고 전했다.<br/><br/>학교 측은 “글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3.txt

제목: [백승찬의 우회도로]사이다는 없다  
날짜: 20170110  
기자: 백승찬 문화부 차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0210522001  
ID: 01100101.2017011021052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정한 뒤 국회에서 탄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6일이었다. 분노한 1000만 촛불이 광화문광장과 전국을 가득 채웠다. 최근 ‘박근혜 결사 옹위’를 주장하는 ‘맞불 시위’가 등장하긴 했지만, 거센 분노의 흐름을 되돌리긴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고 부패한 지도자를 거의 축출한 작금의 상황은 시쳇말로 ‘사이다’이다. 이제 시민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다. 계기가 마련됐으니, 그런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정말 그럴까.<br/><br/>12일 개봉하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은 이명박 정권 당시 YTN, MBC 등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거나, 편향적인 보도와 인사에 항의하거나, 그도 아니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해직된 기자와 PD들이 이후 7년간 겪었던 일들을 다뤘다. 해직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두 달 후면 복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br/><br/>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1심에서 복직 판정을 받아냈지만, 회사는 끈질기게 소송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복직된 이도 있지만, 몇몇은 끝내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다. 어쩌면 이 거대 언론사들은 기나긴 송사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해직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7년 세월 동안 언론사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다. 초기엔 해직 언론인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던 여론도 조금씩 식어갔다. 심지어 해직 언론인들이 모두 복직된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br/><br/>잊혀진다는 건 힘들고 서글픈 일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파괴된다. 평소 온화한 가장이었던 조승호 YTN 기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괜한 일로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용마 MBC 기자는 암과 싸우고 있다. 버티고 살아남아야 했다. 조승호 기자는 무박 2일로 100㎞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을 시작했다. 박성제 MBC 기자는 취미였던 스피커 제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은 해결된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조금씩 지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br/><br/>탄핵 정국은 저널리즘의 승리라는 분석이 있다. 많은 언론사들이 대통령과 측근, 비선 인사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단독’이란 말머리를 붙인 기사들이 각 언론사에서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을 제작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저널리즘에 대한 최근의 상찬이 “불편하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앞서 권력을 비판했던 해직 언론인들은 복직되지 않았고, 이들을 거리로 내쫓은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아직 ‘사이다’는 돌아가지 않았다.<br/><br/>어지러운 판국일수록 쾌도난마의 언변,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환호를 받는다. 대선을 앞두고도 그런 정치인, 논객이 인기를 끈다.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사이다’의 원조였다.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끈 다큐멘터리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부산에 출마한 노무현을 담아냈다. 당시 유세 장면을 보면 노무현은 근래 보기 드문 탁월한 대중연설가였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군중 앞에서도, 골목길의 소규모 유세에서도 그는 두루 강점을 보였다. 그의 말은 논리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했으며, 인간적인 매력까지 담아냈다.<br/><br/>그런 노무현조차 집권 이후엔 이런저런 장애물에 부딪혀 뜻한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 서거 5개월 전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와 가진 마지막 인터뷰가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 자신의 임기를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 그는 “(역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 의지를 가진 정치인에게조차 개혁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다.<br/><br/>지난달 개봉한 영화 <마스터>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모델로 한 영화다. 현실의 조희팔은 수조원의 피해액을 남긴 채 죽었지만(혹은 사라졌지만), 영화 속 진현필(이병헌)은 시원하게 응징당한다. 진현필의 정·관계 로비 장부를 입수한 강직한 경찰 김재명(강동원)은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쪽으로 향한다. 개봉 이후 3주 만에 650만 관객이 이 속 시원한 엔딩에 박수를 보냈다. 현실이 <마스터> 같다면 좋겠지만, 실제론 <7년-그들이 없는 언론>에 가까울 것이다. 지루하고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br/><br/>개혁이란 살림살이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살림을 살아본 사람은 안다. 해도해도 끝이 없다.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난다. 안 하기 시작하면 집안꼴이 엉망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 지겨운 살림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제 지겨운 일을 꾸준히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꾸역꾸역 고구마를 먹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br/><br/><백승찬 문화부 차장>

언론사: 경향신문-3-474.txt

제목: 한방암치료, ‘검증된 치료’ 확인된 곳에서 처방받아라  
날짜: 2017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10150126001  
ID: 01100101.2017011015012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달 초 암환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남 대형한의원의 한 한의사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엉터리 줄기세포 주사약에 직접 만든 약을 섞어 '암 치료제'라고 속이며 치료를 진행해왔던 것. 더 큰 문제는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돼 수억에 달하는 돈도 모자라 생명까지 잃은 사태가 발생했단 점이다. <br/><br/>이 한의사는 과거에도 불법 시술로 면허를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에 활용했다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으로 여겨질 가능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재산을 고스란히 이 의사에게 갖다바쳤다.<br/><br/>의학업계 관계자는 "암치료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사기성 치료를 진행하는 일부 의료진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암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의학적 치료는 정확한 검증과 근거를 기반으로 완성된 치료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이처럼 최근 한 최근 한방암치료를 표방한 한방의료기관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료기관들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치료제를 환자에게 처방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때일수록 검증된 치료제를 바탕으로 암치료를 진행 중인 병원을 잘 선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r/><br/>이와 관련 세계적인 논문에 게재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탕으로 암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통합한의원이 주목받고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이 암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는 천연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다. 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의 탁월할 항암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방면역항암제로 암세포의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해 전이 및 재발을 방지, 화학항암제와 병행 처방 시 30% 미만의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실제로 하나통합한의원에서 티버스터를 처방받은 폐암환자는 생존율이 올라가거나 암세포가 소멸되는 등 우수한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br/><br/>한편 21년간 암치료를 전문으로 해온 하나통합한의원은 강남푸른숲한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현재 하나통합한의원은 작년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자매병원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제3병원 가평푸른숲한방병원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사태가 대형한의원에서 발생해 한방치료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우려스럽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들어 암치료를 정직하게 진행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경향신문-3-475.txt

제목: [민주주의는 목소리다]②민주주의 가로막는 권력의 언어, 일상에서 무한 변주  
날짜: 20170109  
기자: 정대연·고희진·허남설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9225317001  
ID: 01100101.20170109225317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ㆍ1부 ② 말을 지배하려는 자, 누구인가<br/><br/><br/><br/>▶지배자의 통치 논리<br/><br/>1987년 민주화 이후 물리적 폭력을 앞세우는 ‘힘의 지배’는 어려워졌다. 권력은 그 빈 자리를 ‘말의 지배’로 채웠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년간의 경향신문 1면과 주요 지면에 보도된 대통령·정치인·재벌총수·고위관료 등 권력자들의 말을 전수조사했다. 분석 결과 독재정권이 즐겨 썼던 국가주의, 색깔론, 왜곡된 법치를 담은 언어는 민주화 이후 정권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 권력이 반복하는 언어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br/><br/><br/><br/>■전체 위해 희생하라 - 공동체 앞세워 희생 강요, 거부 땐 ‘이기주의’ 매도<br/><br/>권력은 기회만 되면 “공동운명체”(김영삼 전 대통령)를 강조했다. 주로 ‘위기’나 ‘집단적 목표’와 함께 등장해 노동자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때 쓰였다. <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근로자</span>, 기업인, 정부는 모두</span>” “<span class='quot0'>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span>” 하는 ‘한배를 탄 사람들’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사회혼란을 조장해”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br/><br/>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온 세계가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터에</span>” “<span class='quot1'>화합의 잔치를 망가뜨리려는 일은 어떠한 허울 좋은 명분에서라도 국민과 정부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span>”이라며 민주화 진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공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span class='quot2'>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는 것</span>”이라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span class='quot2'>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냐</span>”고 쏘아붙였다.<br/><br/>이명박 정권 때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민들을 겨냥해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span class='quot3'>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span>”고 위기론을 부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더 노골적이다. 박 대통령은 “<span class='quot4'>이해당사자 간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했다.<br/><br/>공동운명체 강조는 ‘희생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기주의’ 비판으로 왜곡됐다. <br/><br/>6월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5'>투철한 애국심과 자기희생의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때</span>”라며 ‘자기희생론’으로 시민들 요구를 짓밟으려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 같은 논리는 사라지지 않았다.<br/><br/>1996년 말 노동법 날치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6'>작은 이익에 얽매인 사사로운 이기심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한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0'>노동자가 봉사자 같은 기분으로</span>”(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span class='quot0'>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span>”(박근혜 대통령)는 얘기다.<br/><br/>그 연장선에서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경총 등 경제 6단체, 1989년 11월)를 깬 사람들은 “내 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책임을 추궁당했다.<br/><br/>반면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일삼아 위기를 유발한 권력자들은 오히려 국익을 명목으로 용서받았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span class='quot7'>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span>”고 했다.<br/><br/><br/><br/>■불순 세력 조심하라 - ‘선량·불순’ 이분법적 언어로 집단 목소리 무력화<br/><br/>권력은 시민들을 ‘선량한 국민’과 ‘불순한 세력’으로 양분한다. 그리고 서로를 적대하게 만든다. 이분법적 언어로 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순간 집단의 목소리는 무력화됐다. ‘을들의 갈등’을 조장해 민주주의 목소리를 고립·배제하는 통치였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span class='quot8'>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의 정치적 구호에 선동돼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span>”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선동 및 배후조종한 자”(김경한 전 법무장관)들의 “혹세무민”(심재철 전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시민들이 “정보전염병”(이명박 전 대통령)에 걸렸다고 한탄했다. 이들에게는 4대강 사업 비판 여론도 “정치적 선동”(조해진 전 한나라당 대변인)이 원인이었다.<br/><br/>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배후조종 세력들이”(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악성 유언비어”(박근혜 대통령)로 “순수 유가족”(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김 전 대표)켰다는 마타도어 전략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비판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7'>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하면 안된다</span>”고 했다.<br/><br/><br/><br/>■본분과 법을 지켜라 - 전교조·학생운동 통제하고 노동자 집단행동 차단<br/><br/><br/><br/>통치자들은 시민들의 ‘말할 자격’도 임의로 규정했다. “<span class='quot0'>근로자</span>”는 “사상적으로 오염되는 일이 없”(노태우 전 대통령)어야 했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훈계했다.<br/><br/>1991년 6월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서리가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에게 밀가루 세례를 받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1'>학생 본분은 물론 인륜에 비추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span>”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지시했다. 교련수업 반대 움직임이 일었을 때는 “더 이상 대학이 황폐화해 가는 현상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김영식 전 문교부 장관)다며 휴교령 발동을 경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교조 결성 시도를 “<span class='quot9'>우리의 오랜 문화전통을 감안하면</span>”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막았다. <br/><br/>김영삼 정권은 대학가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확산하자 “<span class='quot10'>대학을 학문을 닦고 교육하는 곳으로 보존하기 위해</span>” “단호히 맞설 것”(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br/><br/>노동자의 ‘말할 권리’도 권력의 편의에 따라 제한됐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대표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철도·지하철 노조에 “<span class='quot6'>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span>”고 했다. 1998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을 반대한 노동자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11'>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span>”고 몰아붙였다. <br/><br/> <br/><br/><br/><br/> ▶통치 언어의 일상 버전<br/><br/>대통령과 고위공무원, 재벌총수 등이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는 일상 곳곳에서 응용된다. 국가라는 ‘공동운명체’를 위해 참으라는 논리는 ‘회사를 위해’ 삶을 희생하라는 주문으로 변주된다. 불합리한 처우에 저항하면 ‘타인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란 딱지가 붙는다. 이는 ‘불순 세력이 나라를 망친다’는 통치자 언어의 또 다른 버전이다.<br/><br/><br/><br/>■전체 위해 희생하라 - 공동체가 회사로…개인의 삶 포기 강요<br/><br/>“우리 곧 해외 공연할 거야. 그런데 개런티는 없어. 할래, 말래?”<br/><br/>극단 대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배우 박은영씨(33·가명)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해외 공연은 극단 인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원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다.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극단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이다. 박씨는 “알겠다”고 답했다.<br/><br/>지난해 박씨는 12개 작품에 참여했다. 8월부터 4개월 동안 단 5일밖에 쉬지 못했다. 그런데도 월급은 20만~70만원을 오갔다.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연수익을 단원과 극단이 일정한 비율로 나눴다’고 문자메시지로 설명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 박씨는 “<span class='quot12'>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공동체’니, ‘희생정신’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span>”고 했다.<br/><br/>광고 벤처회사에서 10년간 일한 이희경씨(32·가명)는 “회사를 위한 인내”가 임계치를 넘어서자 일을 그만둔 경우다. <br/><br/>밤 11시까지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것까지는 견딜 만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암수술을 하는 날에도 이씨는 일 때문에 가보지 못했다. 당시 이씨의 회사는 미국에서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다. 수술 후 어머니는 회복했지만, 이씨는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3'>회사 일만 하다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에 지쳐버렸다</span>”고 말했다.<br/><br/><br/>■불순 세력 조심하라 - 불합리한 처우 지적하면 ‘문제집단’ 몰아<br/><br/>국가가 선량한 시민과 불순한 시민을 나누듯 기업은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하는 노동자들을 ‘문제집단’으로 규정해 다른 노동자들과 분리했다.<br/><br/>김성모씨(34·가명)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측에 맞서 노동쟁의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파업은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어느 날엔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현장에 찾아와 “<span class='quot14'>우리도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냐, 쟁의를 하려면 우리랑 협의하고 하라</span>”며 화를 냈다. 항의한 사람들은 정규직 중에서도 사측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돌았다.<br/><br/>김씨가 일하던 공장에서는 비정규직도 계약 기간에 따라 장·단기직으로 나뉘었다. 김씨가 단기직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상사는 대놓고 “<span class='quot15'>너 때문에 다른 단기직이 피해를 본다</span>”고 쏘아붙였다. ‘단기계약’ 비정규직들이 권리 주장에 나서기 힘들도록 계약 기간을 더 줄이면서 김씨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br/><br/><br/><br/>■본분과 법을 지켜라 - 사회 비판하는 학생의 입 틀어막아<br/><br/>국가는 사회를 비판하는 학생들에게 종종 ‘본분을 지키라’며 입을 막아왔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억압이 민주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 곳곳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br/><br/>김민석군(18)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나갔다. 학생들의 참가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학생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핀잔을 주는 ‘어른’들도 있었다. <br/><br/>김군은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학내 시국선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span class='quot16'>자부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span>”고 털어놨다. <br/><br/>시국선언을 위해 마이크를 빌리러 간 김군은 일부 선생님들에게 ‘네 뜻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냐’는 말도 들었다. 김군은 “<span class='quot16'>‘너희가 다른 어른들에게 선동당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모욕감이 느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6'>사회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같이 해결하자는 의미로 의견을 냈는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 화가 치밀었다</span>”고 말했다.<br/><br/><br/>■특별취재팀 <br/>송윤경 김지원 정대연 허남설 고희진 기자<br/><br/><정대연·고희진·허남설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6.txt

제목: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거절 많다  
날짜: 20170108  
기자: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8132850001  
ID: 01100101.20170108132850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ㆍ작년 124건 피해구제 신청<br/><br/>60대 여성 황모씨는 2015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진단급여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뇌경색이 아닌 뇌혈관질환 및 대뇌죽상경화증으로 판단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002년 ㄱ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조모씨도 2016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br/><br/>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br/><br/>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9월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8건 중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피해가 60.0%(611건)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다.<br/><br/>전체 1018건 중 취하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823건 중 보험금 지급이나 환불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7.8%(393건)였다. 그러나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해구제 건의 합의율은 35%로 전체 합의율보다 낮았다.<br/><br/>소비자원은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과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와 협의해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7.txt

제목: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료 지급 거절··· 진단급여금 최다  
날짜: 20170108  
기자: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8120117001  
ID: 01100101.20170108120117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한국소비자원은 8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br/><br/>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신청 건은 총 2586건으로 특히 2016년은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했다.<br/><br/>피해유형별는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611건)로 가장 많았고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40.0%(407건)로 조사됐다.<br/><br/>특히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20.3%(124건)에 달했다. <br/><br/>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br/><br/>이 경우 합의율은 35.0%(42건)로 전체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계약이행, 환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7.8% (393건)였다.<br/><br/>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0%(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이었다.<br/><br/>한편,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경색’ 13.7%(17건), ‘골절’ 12.9%(16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은 악성 종양 인정 여부, ‘뇌경색’은 진단의 적정성 여부, ‘골절’은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자문이 많았다.<br/><br/>한국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과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것</span>”을 당부했다.<br/><br/><br/><br/><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8.txt

제목: [책과 삶]모든 생명은 조절된다, 결국 문제는 인간이다  
날짜: 20170106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6193525001  
ID: 01100101.2017010619352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세렝게티 법칙 <br/>ㆍ션 B. 캐럴 지음·조은영 옮김 |곰출판 | 352쪽 | 1만8000원<br/><br/><br/><세렝게티의 법칙>은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부터 아프리카 대초원의 코끼리까지 생태계 내 모든 생명체의 개체수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법칙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발견됐다. 진화생물학자인 저자 션 B. 캐럴은 자신이 ‘세렝게티의 법칙’이라 부르는 개체수 조절 법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됐는지를 살피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핵심은 분자나 박테리아 수준에서 발견되는 개체수 조절 법칙이 동식물 수준에서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이다.<br/><br/>하버드대 생리학자 월터 캐넌(1871~1945)은 “<span class='quot0'>인체가 적극적인 조절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한다</span>”는 점을 입증했다. 예컨대 우리 몸속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글리코겐이 분해돼 당분이 생산된다. 전쟁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쇼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알칼리성인 혈액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산성화되기 때문이다. 탄산수소나트륨을 처방하면 쇼크사 확률을 낮출 수 있다.<br/><br/><br/>체내의 물질이 어떤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는 논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밀고 나가 박테리아 수준에서 입증한 것은 프랑스 유전학자 자크 모노(1910~1976)였다. 그는 박테리아와 효소의 관계를 연구했다. 표면적인 관찰에 따르면, 박테리아는 락토스가 있을 때 효소를 생산했다. 모노의 연구가 탁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박테리아에는 효소 생산을 억제하는 억제자가 있어 락토스가 없을 때는 효소를 생산하지 않았다. 락토스는 이 억제자의 작동을 훼방 놓아 효소를 생산했다. ‘생산을 억제하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생산한다’는 일종의 이중부정 논리다. 이러한 체내 물질의 개체수 조절 법칙은 나중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피드백의 법칙에 의해 더욱 정교해졌다.<br/><br/>생태계에서도 특정 동물 개체수는 다른 동물들의 수와 연관돼 있다. 옥스퍼드대 출신 동물학자 찰스 엘턴(1900~1991)은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먹이사슬의 피라미드 구조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설치류인 레밍이 일정한 주기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레밍 포식자인 여우의 개체수가 사냥에 의해 감소한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캐나다 토끼 개체수 또한 포식자 스라소니 개체수가 감소한 시기에 최정점을 기록했다. <br/><br/>먹이사슬 연구를 한 걸음 더 진보하게 만든 이들은 ‘HSS’라 불린 세 과학자(헤어스턴, 스미스, 슬로브드킨)다. 이들의 기여는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개체수를 결정하는 열쇠를 피식자가 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예컨대 애리조나 북부 지역에는 포식자인 늑대와 코요테, 피식자인 사슴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포식자인 늑대와 코요테가 몰살되면서 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br/><br/>1970년대 애리조나대학 학생이었던 짐 에스티스와 존 팔미사노는 해달-성게-켈프(대형 해조류)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관찰에 따르면, 해달이 성게를 포식함으로써 켈프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바꿔 말하면, 해달이 켈프의 생장을 억제하는 성게를 억제함으로써 켈프 개체수 증가에 기여했다. 요컨대 에스티스와 팔미사노가 발견한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 발견됐던 이중부정의 논리가 동물 생태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었다. <br/><br/>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은 조절 법칙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무대다. 1977년 세렝게티의 검은꼬리누 개체수는 이보다 4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140만마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포식자인 사자와 하이에나의 수도 증가했는데, 검은꼬리누와 먹이사슬 관계에 있지 않은 기린의 수도 증가했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유는 화재 건수가 줄어들면서 기린의 먹이인 묘목의 생장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재가 줄어든 것은 검은꼬리누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초원의 풀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검은꼬리누가 증가한 것은 가축 백신 때문에 질병 바이러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계의 동식물 개체수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저자는 세렝게티의 법칙을 “<span class='quot1'>모든 동물이 다 동등한 것은 아니다</span>” “<span class='quot1'>어떤 종은 영양 종속을 통해 강력한 간접 효과를 매개한다</span>” “<span class='quot1'>어떤 종들은 공유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span>” “<span class='quot1'>어떤 종은 밀도에 따라 조절된다</span>” “이주는 동물 수를 늘린다” 등 6가지로 정리한다.<br/><br/>이처럼 지구 생태계의 개체수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은 이 법칙이 인위적으로 깨질 경우 생태계가 병들 수 있다는 뜻이다. 197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에서는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한 살충제가 거꾸로 벼멸구의 산란율을 최대 2.5배까지 끌어올려 농가를 초토화했다. 이유는 살충제가 벼멸구의 천적인 곤충들을 몰살시킨 데 있었다. 먹이사슬에서 포식자가 축출되면서 3단계로 이루어진 사슬이 2단계로 줄어든 결과 발생한 참사다. <br/><br/>결국 인간이 문제다. 저자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암의 근본적 원인은 단순히 포식자가 제거된 상황에 있지 않다. 너무 지나친 인간의 행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간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해진다”고 말한다.<br/><br/>저자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 복원이 좋은 사례다. 고롱고사는 1977년부터 1992년까지 15년 동안 100만명이 사망한 모잠비크 내전으로 폐허가 됐으나 10년간에 걸친 체계적 복원 노력 끝에 아프리카의 어느 보호구역보다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낙원으로 거듭났다. <br/><br/>파이낸셜 타임스 서평자의 지적처럼 개체수 조절 법칙이 유전학이나 신경과학처럼 매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이야기꾼으로 알려진 저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만난 체험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거나 조절 법칙 발견에 기여한 선배 학자들의 전기적 요소를 잔뜩 집어넣어 흥미를 유발한다. 개체수 조절 법칙 자체는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단조롭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던 것 같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3-479.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7년 1월 6일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5234930001  
ID: 01100101.201701052349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닭털 붓 100개 모은 이유가 뭘까<br/><br/>■VJ 특공대(KBS2 오후 10시) = 닭털 붓의 매력에 푹 빠진 깃털 붓의 대가 구석고 화백을 만난다. 구 화백은 거대한 화선지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서예 퍼포먼스를 할 때면 닭털 붓을 애용한다고 한다. 일반 붓과 달리 좀 더 거친 느낌이 나고 그 덕분에 새로운 느낌의 화풍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가 모은 닭털 붓이 무려 100개나 된다. 초대형 닭털 붓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을 감상해본다.<br/><br/>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br/><br/>■궁금한 이야기 Y(SBS 오후 8시55분) =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전한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병동 평균 재원 기간은 27일이다. 이 기간에 가족들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별을 준비한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 할아버지부터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빠까지 가슴 뭉클해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본다.

언론사: 경향신문-3-480.txt

제목: ‘카이스트인 상’에 박희성 교수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2212419001  
ID: 01100101.2017010221241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는 ‘2016년 올해의 카이스트인 상’ 수상자로 박희성 화학과 교수(46·사진)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교수는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현재는 신약 개발을 위해 환자로부터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뽑아야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런 과정 없이 신약 후보물질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2011년 처음으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인산화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데 이어, 이번에 200여종의 다양한 단백질의 변형을 구현해냄으로써 표적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 경향신문-3-481.txt

제목: 40~50대 은퇴준비, 기본원칙은?··· 은퇴연구소에 물었다  
날짜: 20170102  
기자: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2160015001  
ID: 01100101.20170102160015001  
카테고리: 경제>증권\_증시  
본문: 45세 직장인 ㄱ씨는 새해에 한 살 더 먹게 된 나이가 무겁게 느껴진다. 해가 갈수록 은퇴 후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커진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바람에 50대 초반부터 옷 벗고 회사를 나가는 선배들이 요즘 부쩍 눈에 띈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를 은퇴 전에 졸업이나 시킬 수 있을까’ ‘‘100세 시대’라서 은퇴하고 나서도 30년은 더 살텐데 어떻게 먹고 살면 좋을까’ 하는 걱정거리들이 금세 머릿속을 채운다.은퇴 걱정이 시작되는 40~50대,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까. 생명보험사, 증권사들의 은퇴연구소 4곳에 ‘40~50대가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고려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무엇에 투자하라’는 조언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본부터 다지라’는 조언들을 새겨들을 만하다.■투자처 찾지 말고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하자“‘어디에 투자할까’를 가장 많이 묻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십시오’입니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은퇴 걱정’이라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사는 “<span class='quot0'>은퇴 준비의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상품과 자산·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금은 은퇴 후 주 소득원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상품이 무엇인지, 몇살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한다. 국민연금 사이트의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등에서 현재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내 보험 다보여’ 코너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연금을 시기별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은퇴 준비의 어느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다. 가령 내 은퇴 예상시점은 55세인데 모든 연금을 60세부터 수령가능한 경우라면 투자를 해서 공백기 수입원을 만들지, 연금상품을 가입해서 만들지 등을 선택하고 은퇴 준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퇴직금 사수하고 투자 전에 대출부터 상환해라“<span class='quot1'>어렵겠지만 은퇴 후 주소득원이 될 퇴직연금자산은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span>”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금을 사수하라고 조언한다. 한국 직장인은 평균근속년수가 남녀평균 5.6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다. 근로기간 중 3~4회 정도 이직을 할 경우 그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을 기회가 생긴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받아 자녀의 학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만 은퇴 전 저축·투자 기간에 자산을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다.또한 퇴직 전까지 새로 투자를 하기보다 대출을 모두 상환해 제로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조 연구원은 “은퇴 후에도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대출금리인상이나 대출연장에 실패할 경우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인 ‘의료비’ 대비하라“자산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큰 병 한 번 걸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의료비 지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나이가 들면서 점점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젊었을 때보다 크게 들 일이 많다. 회사를 다닐 때는 병에 걸릴 일도 적을 뿐더러 회사에서 단체보험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데 은퇴 후에는 이를 받지 못한다. 이때문에 은퇴 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span class='quot2'>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병원비를 대체로 다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부터 가입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보험을 추가하라</span>”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암과 같은 특정질환을 암보험, CI보험 등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유전력 등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질병 발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면 된다. 김 부소장은 “<span class='quot2'>은퇴 후 자산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해외·국내 섞어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어라“<span class='quot2'>연금 자산은 해외·국내를 섞어 투자해서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span>”이윤학 NH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span class='quot2'>투자형 자산 중 30%를 해외자산으로 가져가라</span>”고 조언했다. 현재 일시적으로는 금리 상승기이지만 앞으로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적금 만으로 은퇴 후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는 없다. 은퇴 후를 위한 자산 중 금융자산과 투자형 자산을 일정부분 유지하고, 투자형 자산 중에 30%는 해외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금자산의 경우 중위험·중수익 상품 위주로 장기투자를 하면서 국내와 선진국·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에 고루 투자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span class='quot3'>주식형·채권형 등으로 투자대상을 분산하고 장기·단기 등으로 투자기간 분산, 국내통화·외국통화 등으로 통화를 분산해야만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위험분산이 잘 돼 있는지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경향신문-3-482.txt

제목: 8000억원 규모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 무산  
날짜: 20170101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101164320001  
ID: 01100101.20170101164320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경기 여주시가 외국계 기업과 함께 추진하던 투자비 8000억원 규모의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협약 체결 8개월 만에 무산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이 관련 외국계 기업의 투자 순수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자 해당 기업이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1일 여주시에 따르면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19일 미국 현지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 아시아지역본부(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여주시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이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대 50만 평 부지에 8000억원을 투자, 2019년을 목표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과 함께 체류형 치료와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헬스케어 리조트, 스마트 빌리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다.당시 원경희 여주시장은 “<span class='quot0'>이 사업으로 고용창출과 유동인구 증가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여주가 국제 의료휴양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span>”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이 투자회사는 K건설과 사업용지 매매를 위한 계약 단계까지 진행했지만, 계약금 및 대금 지급 방법에 이견이 생겨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다가 여주시의회 이항진·윤희정·김영자 의원이 사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영자 의원은 협약 체결후 두 달만인 지난해 6월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pan class='quot1'>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신뢰성 때문에 실패한 사업인데, 여주시가 제대로 확인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span>”고 지적하며 “<span class='quot1'>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따져봐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시정 질문에서도 “여주시와 맺은 협약을 이용해 투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투자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할 돈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부지를 사지도 않았는데 여주시가 성급하게 협약 먼저 체결했다”면서 “여주시와 협약문서를 들고 부산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커 보였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프로톤 아시아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투자기업은 “<span class='quot2'>우리 기업의 투자업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해 국내 협력업체 구성에 어려움이 크다</span>”고 협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이 기업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이 사업을 위해 30년 기간의 헬스케어본드(채권)도 발행했고, 토지 매입자금으로 1000만달러(약 118억 원) 지급보증 수표도 들어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우리가 여주시와 협약을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span>”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투자와 관련해 모두 설명을 했으며, 투자 사기가 실제로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모든 피해를 다 배상하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현재 여주시 외 한국 내 다른 2곳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모두 보류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여주시는 사업 무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3'>각종 규제로 묶인 여주시에 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컸다</span>”면서 “<span class='quot3'>기업이 다시 사업투자 의사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span>”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시의회와 지역 언론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업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4'>시의회와 소통과 사실확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span>”고 말했다.